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춘향전>의
교육내용과 소규모 학습방안 연구

- 7차 국어·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손 민 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춘향전>의
교육내용과 소규모 학습방안 연구

- 7차 국어·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손 민 경

인 준 서

손민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200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극비밀의 기록서에 나타난 <출항장면>의 기록내용과 선구적 화살판상 연구

신민경

국 문 초 록

고전 문학 중에서도 특히 <춘향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작품 중의 하나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으며, 공감 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6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실려 춘향전을 교육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춘향전이 문학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수업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춘향전이라는 작품은 새로운 흥미 거리를 제공하는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미 식상해버린 작품으로 취급되기 일쑤이며, 교사들 또한 춘향전 작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학습보다는 자습서 내용이나 몇몇의 논문 내용을 단편적인 지식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전 문학이 이처럼 경시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고전 작품에 대한 지도가 도덕적 교훈을 강조한 나머지 올바른 윤리적 가치를 고취시킨다는 목적 하에 주입식으로 교육되어 온 것과, 어렸을 때부터 많은 동화 작품들에서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표면적이고 지엽적인 내용들이 확장되면서 고전 문학은 도덕, 윤리적인 것이라는 선입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관념의 강조가 고전 작품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전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기보다는 시험이라는 의무감에서 혹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마지못해 학습에 참여하는 피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이렇게 따분하게 인식되고 있는 고전 작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현대에 되살려서 교육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며,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려 한다.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춘향전>의 교재수록 현황을 살펴 중요한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실제수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문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미적 가치는 물론 언어의 지식과 활용에 있어서도 훌륭한 문화유산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사 | 6 |
| 3. 연구 방법 | 10 |
| II. <춘향전>의 교육현황 분석 및 학습방안 | 14 |
| 1. 국어(하)에서의 교육 내용 분석 및 학습방안 | 16 |
| 1) 구성 취지 및 수록현황 | 17 |
| 2) <춘향전> 교육 내용 분석 | 17 |
| 3) 학습방안 | 23 |
| 2. 문학 교과서에서의 교육 내용 분석 및 학습방안 | 43 |
| 1) 18종 문학 교과서 구성 취지 및 수록현황 | 45 |
| 2) <춘향전> 교육 내용 분석 | 48 |
| 3) 학습방안 | 62 |
| III. 소규모 협동학습을 활용한 학습방안 | 76 |
| 1. 소규모 협동학습 | 76 |
| 1) 소규모 협동학습의 특성 | 76 |
| 2) 소집단 협동학습의 모형 | 78 |
| 2. 매체 활용을 한 소규모 협동학습 | 80 |
| 3. <춘향전> 교수-학습 지도안 | 84 |
| IV. 결론 | 102 |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분야이다. 따라서 교육은 목적 지향적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중심화두이다. 교육의 근본 목표를 전인적 인간 육성에 있다고 할 때, 문학교육의 목표도 교육의 일반적 목표가 제시하는 방향과 부합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성격을 “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였다.¹⁾ 그리고 이러한 성격과 연계하여 ‘문학’과목의 목표²⁾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

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1, 301쪽.

해설서에서는 문학교육의 주안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학’ 과목 교육 과정은 문학의 본질을 ‘국어 문화의 한 분야인 언어 예술’로 보았다. 여기서 ‘언어 예술’이란 문학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심미적 행위라는 점을 의미하고, ‘국어 문화’란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한국인의 보편 가치와 미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과목의 목적이자 본체인 문학능력을 ‘학습자가 문학 현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였다.

셋째, ‘문학’ 과목의 위치를 국어과 전체의 체계와 관련하여 설계하였다. 다시 말하면, 공통 기본 ‘국어’과목의 ‘문학’영역과 연계하여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는 의미이다.

넷째, ‘문학’ 과목의 목적을 개인의 차원에서는 문학 능력 신장,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문학 문화 발전으로 정하였다면, 그 하위 영역은 당연히 문학 능력과 문학 문화라는 틀을 바탕으로 확정하였다.

다섯째, ‘문학’과목의 지도에서는 바람직한 문학 주체로서의 학습자를 길러 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1, 303쪽.

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7차 교육 과정의 목표는 문학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분명 7차 교육과정은 5차나 6차 교육 과정에 비해서는 확실히 진일보한 측면³⁾을 보이고 있다. 우선, 문학에 대해서는 작품과 작가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문학과 독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였으며, 교육에 관해서도 교사, 결과, 제재 중심 접근 대신 학생, 과정, 활동 중심 접근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문학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것이다.⁴⁾ 또 문학을 하나의 고립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매체 및 활동과 통합된 포괄적 문화 현상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이 교실에서만 향유하는데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문학이 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전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문화의 총체로서의 고전문학을 배우고 이어 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이다.⁵⁾ 더욱이 교통의 발달과

3) 송성욱, <고등학교 교과서 구성과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 《고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안》 월인, 2005, 274쪽.

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1, 302쪽

정보 체계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촌을 이루며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고전문학이다.

둘째, 현대국어를 풍부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 말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말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고전문학교육에서 찾을 수가 있다. 즉, 문학의 역사는 말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고전문학을 학습하는 동안 과거와 오늘의 국어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현재의 국어 생활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고전문학교육은 민족 문화 창조의 밑거름이 된다. 일찍이 조운제⁶⁾는 고전문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고전문학이야말로 민족 역사 창조의 이상을 가장 뚜렷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이상을 몸소 체득함으로써 참다운 현실적, 민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건전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함으로 고전문학이 민족문화 창조에 기여함을 역설한 바 있다. 즉 고전 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미래의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과 같다.

넷째, 고전문학은 오랜 세월동안 가치평가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온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소중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함양시키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문학의 모범으로서도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⁷⁾

다섯째, 고전문학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구체적 삶의 모습들을 통해 어제와 오늘의 우리 삶을 반성해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할

5) 김형규, <고전 교육의 목적과 교재 내용>, 《교육》, 제9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육회, 1959, 4쪽

6) 조운제, 《국문학 개설》, 동국문화사, 1959, 45-70쪽.

7) 황택준, <고등학교 고전 소설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25쪽.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바람직한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⁸⁾

결국 우리는 고전문학교육을 통해 우리의 얼과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뿐 아니라, 고전문학과 맞물려 있는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의 국어생활을 보다 풍부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전문학을 통해 바른 가치와 바람직한 문학의 상을 가질 수 있고, 작품에 나타난 구체적인 우리 조상들의 삶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고전문학교육은 교육현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의 목표와 일반적인 고전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7차 교육과정은 분명 그 전의 교육과정보다 발전된 것이고, 21세기에 적합한 교육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전 문학 교육의 필요성 또한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명제가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전교육이 현장학습에서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이 제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입시라는 제도에 묶여 기존의 수업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전 문학의 경우 각 장르에 해당되는 대표 작품을 가져다 아직도 자구(字句)해석이나 시대 배경 설명 등에 막대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고전문학을 여전히 지루하고 어려운 것으로, 또 현재의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고전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기 보다는 시험이라는 의무감에서 혹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마지못해 학

8) 황택준, 위의 논문. 27쪽.

습에 참여하는 피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⁹⁾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민하게 된 것은 철저한 실태 분석을 통한 현실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고전 문학 교육 방법의 필요성이다. 문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찾기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로서 현실적인 많은 수업 방법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실제 수업은 다양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문학교육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현실성을 갖추어 학교 현장에서 인정받는 고전 소설 교육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춘향전>을 중심으로 탐색해보려고 한다. 판소리 계통의 소설인 <춘향전>은 정부 수립 이후 1차 교과과정에서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우리 민족정신 문화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전>이 다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만큼 <춘향전>이 문학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춘향전>은 전반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춘향전> 교육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적다는 사실이다. 또한, 실제 수업현장에서 <춘향전>이라는 작품은 새로운 흥미 거리를 제공하는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식상해버린 작품으로 취급되기 일쑤인데 이것은 고전 작품에 대한 지도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윤리적 가치를 고취시킨다는 목적 하에 주입식으로 교육되어 왔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고전교육에 있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이 부

9) 이에 대해 송성욱은 (앞의 논문에서) 학교에서 고전교육의 문제점을, ①어휘 풀이에 급급한 현장 교육, ② 문화론적 혹은 문학 생활적 입장에서 고전 소설을 교육할 필요성, ③ 현대적 삶의 관련성 속에서의 고전소설 교육, ④ 고전소설에 대한 학생 흥미 제고의 필요성으로 요약했다.- 송성욱, 위의 논문. 270쪽.

족하다. 학습활동을 살펴보아도 어휘중심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교훈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문학교육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현실성을 갖추어 학교 현장에서 인정받는 <춘향전>의 교육방법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교과서 분석은 공통교육과정인 국어와 선택교육과정인 문학을 나누어 살펴보아서 각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활동이 전개되고 있는지, 또한 참신하고 흥미로운 교육방안은 없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춘향전>은 우리 문학의 대표적 고전 작품으로, 그 이본만도 100여 종의 이본¹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포된 범위도 광범위하다. 이와 같은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춘향전>은 계층과 역사를 초월한 국민 문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¹¹⁾, 김동욱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발생론적 연구¹²⁾, 이본 및 계통 연구¹³⁾, 작품 내적인 분석 연구¹⁴⁾, 비교연구¹⁵⁾가 주조를 이루는 수

10) 김석배, <춘향전 이본의 생성과 변모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11) 김동욱·김태준·설성경 공저, 《春香傳 比較 研究》, 삼영사, 1983, 3쪽.

12) 발생기원에 대한 연구는 ‘무가 기원설’에 관련된 논문, 정로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13) 이본 및 계통연구는 조윤제에 의해 시작되어 김동욱과 설성경이 이를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고 할 것이다.

김석배, 위의 논문.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정음사, 1986.

14) 조동일, <춘향전 주제의 새로운 고찰>, 《우리 문학과 의 만남》, 흥성사, 1978.

정하영, <춘향전의 주제>, 《한국 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황폐강, <춘향전 연구>,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 문화사, 1991.

15) 김동욱, <增補 春香傳 研究>, 연세대출판사, 1976.

조윤제, 《敎主 春香傳》, 을지문화사, 1957.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춘향전>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미미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소설교육과 고전소설 교육에 대한 연구가 언급되면서 시작되었다. 소설 교육의 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대체로 소설 교육의 현상에 관한 연구¹⁶⁾와 소설교육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¹⁷⁾가 있으며, <춘향전>의 지도와 관련된 연구는 판소리 소설로서의 지도방안 속에 일부로서 소개하고 있는 논문¹⁸⁾과 본격적인 <춘향전>의 교육에 대한 연구¹⁹⁾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기존 연구 중 본 논문과 같이 동일한 관심 속에 진행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아란은 판소리계 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실상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작품지도를 위해 수업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여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김아란은 특히 판소리계 소설 지도시 수용자인 학습자에게 주체적인 역할을 맡기는 학습자 중심의 지도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였다.

-
- 16) 김혜경,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정성란,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7.
이미진, <고전 소설 수록 양상의 적정성 분석과 바람직한 교재화 방안>,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8.
- 17) 구혜경, <소설 교육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류덕제, <소설 텍스트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95
김중신, <소설 감상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김영찬, <고전문학 교육의 지도 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박병술, <고전소설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18) 김아란, <판소리 소설 지도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노상예, <춘향전과 춘향가의 수업모형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안성준, <판소리계 소설 지도방안 연구-춘향전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19) 김용국, <춘향전 연구-장면의 비교제시를 통한 교육내용의 개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김동환, <춘향전의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정상우, <춘향전 교육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2.

노상예는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의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위해 <춘향전>을 소설적 요소를 강조한 수업 모형과 판소리적 요소를 강조한 수업 모형으로 나누어 수업을 실시하여 판소리적 요소를 강조한 수업 모형이 <춘향전>수업에 효과적임을 결론으로 이끌어냈다.

안성준은 현행 우리의 문학 교육 현실이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기르기보다 작품의 분석에 치우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미적인 면에서의 작품 감상을 위해 등장인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구성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문제 면에서의 장점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김용국은 <춘향전 연구>에서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을 교육과정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춘향전의 교육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춘향전>을 교재에 수록할 때 원문을 제시할 것과 어느 한 장면이 아니라 몇 장면을 발췌하여 실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환은 <춘향전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에서 고전소설 교육으로서의 춘향전의 위상을 밝히고 효율적인 학습지도방안을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모형의 제시가 교사가 학생에게 던지는 질문으로만 이루어짐으로써 추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정상우는 7차 교육과정의 설정 기저에 '지식은 학습자의 내적인 인지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반영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학습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교육 방식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전>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통합 학습 지도 방법으로 국어과의 읽기 능력 향상 방법 중 소설과 같은 문학 제재의 읽기 학습 지도 모형인 직접 읽기 활동법 - DRA(Directed Reading Activity)- 을 활용한 문학 제재 통합 학습지도 방

법과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매체 활용 통합 학습 지도 방법을 종합하여 <춘향전> 교수·학습을 위한 통합학습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보미는 문학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문학 작품에 대한 독자의 적극적 수용과 내면화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방법으로 작품 읽기와 글쓰기를 결합시켜 평가하는 것을 평가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구체적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평가’를 제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춘향전>을 교육적 시각에서 현대적 변용 측면을 연구한 논문들²⁰⁾이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춘향전>의 학문적 연구는 매우 방대함을 알 수 있었다. <춘향전>의 교육방안 연구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춘향전>의 학문적 연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 <춘향전>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제시한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전체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 공통 교육 과정인 국어와 선택 교육 과정인 문학의 연계성을 고려한 학

20) 고양숙, <춘향전의 현대적 수용과 문화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정영아, <춘향 이야기의 근대적 변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박은주, <춘향전의 문학교육적 연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은영,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문학 교육적 효과-패러디 소설 작품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김진희, 윤덕진,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습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어 과목과 문학과목의 연계성을 밝힌 후, 그에 맞는 학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앞에서 살펴 본 연구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문학 작품인 <춘향전>의 학문적인 연구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춘향전>의 학문적 연구에서의 많은 연구업적에 비해 문학 교육 대상으로서의 <춘향전> 학습지도를 위한 교육 이론 및 교육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양과 질 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고전 문학이 문학이라고 하는 더 큰 영역의 일부이며 고전과 현대라는 구분 자체가 문학교육의 목표나 방법에 있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고전문학 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실천적인 연구가 문학에 관한 연구에 비해 그 역사가 매우 짧은 점, 학교 현장에서도 입시 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본 연구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춘향전>이라는 하나의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 연구의 대상보다는 교육 제재로서의 교육적 의의와 효율적인 수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고전인 <춘향전>에 다가가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연구사를 검토한다.

본론은 II장, III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II장에서는 <춘향전>의 교과서 수록 현황과 그에 맞는 학습대안을 찾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우선 7차 교육과정의 교과 구성방법²¹⁾을 언급하고, 공통 교육과정에 속하는 10학년의 고등학교 국어(하) <춘향전>의 수록 목적과 작품이 수록된 단원명, 발췌한 부분, 교육적 가치 등을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두 번째로는 선택교과과정인 문학 교과서에 실린 <춘향전>을 찾아 같은 방식으로(수록 목적, 수록된 단원명, 발췌한 부분, 교육적 가치 등을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교과서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때 참고도서는 주로 각 교과서에 해당하는 교사용 지도서와 7차 교육과정 해설서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 과정을 통해 7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과서별 분석을 통해 알아본 <춘향전>의 현주소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춘향전>의 어떤 부분이 주로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 부분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목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살펴 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춘향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에는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인데, 학습 목표와 교과서 수록 부분, 학습 활동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1)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총론’이 지향하는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10학년(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에서 이 교육 과정은 10학년, 즉 1학년에서 적용된다.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11학년과 12학년, 즉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적용된다. 이처럼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두 개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즉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해 온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고등학교에서 적용하게 될 교육과정은 ‘(1) 보통 교과’와 ‘(2) 전문교과’로 편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보통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적용되는 ‘보통 교과’는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는 다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며,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는 ‘보통 교과’의 하나로 구분되며, ‘국민 기본 공통 교과’인 ‘국어’과목과 ‘일반 선택’과목인 ‘국어 생활’, ‘심화 선택’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는 7개 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가지게 되었다.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1.

에 대해 언급하겠다. 또 상호텍스트를 목적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학습활동 등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작품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제시한 학습 방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도 짚고 넘어가겠다. 세 번째로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춘향전>을 새롭고 흥미 있는 고전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로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상호텍스트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과서에서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했던 예시 대신 새로운 예시들을 적용해보고, 현대적 변용 방법으로 <춘향전>이 모티프가 된 현대시들을 제시하고, <춘향전>을 이용한 재창작 학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기존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춘향전>의 수록 부분 외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춘향전>의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기존에 많이 실려 있는 대목인 ‘옥중 상봉’이나 ‘암행어사 출두’ 장면 대신,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춘향전>의 한 부분을 이용하여 학습활동을 풀어봄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여려는 시도이다. 자신이 잘 아는 작품이라 확신하고 있을 때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고, 접근해 간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모두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언급했던 대안 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점을 둔 것은 매체 활용을 한 소규모 협동학습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의 한 방법으로 소규모 협동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학습대안들을 수업

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협동학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할 때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수-학습 지도안을 짜보고, 평가 방법까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수업방안을 짤 때 중점적으로 생각한 기준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입시제도 안에서 수업 실 단위가 한 작품 당 2~3시간 밖에 주지 않은 현실적 입장²²⁾ 모두를 고려하여 두 조건에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수업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 것이다.

IV장은 결론으로 앞의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하여 현실성 있고 새로운 수업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2) 현행 교과과정에 따르면 국어(하)의 <춘향전>의 실 수업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교육부,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2001.

Ⅱ. <춘향전>의 교육현황 분석 및 방안

<춘향전>은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고등학교 1학년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정 교과서에 꾸준히 수록되고 있다. 그 수록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춘향전의 교육과정별 교과서 수록양상²³⁾

| 교육과정 | 발생년도 | 수록년도 | 발췌부분 | 판본 |
|------|-------|---------|------------------------|-------------------------|
| 1차 | 1961년 | 고등학교Ⅲ | 과거시험-춘향과의 옥중상봉 |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 완판본 |
| 2차 | 1968년 | 인문국어Ⅲ | 과거시험-춘향과의 옥중상봉 |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 완판본 |
| 3차 | 1975년 | 고등국어3 | 과거시험-춘향과의 옥중상봉 |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 완판본 |
| 4차 | 1986년 | 고등국어3 | 과거시험-춘향과의 옥중상봉 |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 완판본 |
| 5차 | 1990년 | 고등국어(하) | 본관사또의 생일잔치-춘향모의 즐거움 | 국립국악원· 국악전집 (판소리) |
| 6차 | 1996년 | 고등국어(상) | 본관사또의 생일잔치-끝 |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 완판본 |
| 7차 | 2002년 | 고등국어(하) | 본관사또의 생일잔치-끝 |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 완판본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에서 4차 교육과정까지는²⁴⁾ 과거시험 장면부

23) 이미진, 「고전소설 수록 양상의 적정성 분석과 바람직한 교재화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30쪽.

24) 노상예, 「<춘향전>과 <춘향가>의 수업 모형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터 춘향과의 옥중 상봉의 내용이 발췌 되었고, 5차 교육과정²⁵⁾에서는 판소리 춘향가의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 장면부터 춘향모가 즐거워하는 부분까지가 발췌되었다. 6차²⁶⁾와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소설 춘향전의 본관사

2000. 20-21쪽.

- ① 제 1차 교육과정- 제 1차 교육과정기 국정 교과서 3학년용과 검인정 교과서 7종(고전 교과서 17종 가운데 고전문학 작품을 수록한 것은 모두 10종이고, 그 가운데 7종이 <춘향전>을 기록하고 있다.)에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이 수록되어 있다. 국정 교과서에서는 ‘이도령의 과거 급제와 암행어사 제수, 옥중 춘향 상봉 장면’이 수록되었다. <춘향전>은 <홍길동전>과 같이 7종의 고전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춘향전>의 교육적 가치를 일찍부터 인정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고전 교과서에 다시 수록되어 중복되는 것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 ② 제 2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기 국정 교과서에 수록된 5편의 소설 가운데 고전 소설은 3편이 실렸다. <춘향전>은 제1차 교육과정기에서와 같이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이 기간 간행된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모두 19편으로, 그 중 수록 빈도가 가장 높은 작품은 <춘향전>이다. 국어 교과서에 실린 고전 소설 <춘향전>은 고전 교과서 16종 모두에 실려, 교과서 간의 중복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③ 제 3차 교육과정- 제3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 소설은 모두 3편으로, 수록 작품은 제 2차 교육과정기와 동일하다. 이 가운데 <춘향전>은 여전히 고전 문학 5종 교과서 가운데 4종에 실렸고, 그 가운데 2종은 판소리 사설로 실려 있다. 이는 국정 교과서의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과 고전 교과서의 판소리 사설 <춘향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 ④ 제 4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에도 <춘향전>은 3학년 과정에 수록되었다. 고전문학 5종 교과서 가운데 3종에 <춘향전>이 수록되었고, 이 가운데 2편이 판소리 사설의 형태로 수록되었다. <춘향전>을 수록한 고전문학 교과서가 줄어든 반면 판소리 사설 형태로 수록된 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교과서 편찬에도 반영되어 판소리와 소설의 비교를 통해 서사문학의 발전 과정을 알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5) 《하이라이트 고전 연구》, 지학사, 1991. 207쪽.

제5차 교육과정- 제 5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 ‘국어(하)’에서 <춘향가>가 판소리 사설 형태로 실려 있다. 국정 교과서에 판소리 사설이 수록된 것은 제 5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 <춘향가>는 ‘노래와 삶’이라는 단원에 수록되어 판소리의 음악적 성격과 함께 춘향 이야기가 지니는 의미를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다루도록 의도하고 있다. 문학 교과서 1종에도 역시 판소리 사설의 형태로 <춘향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작품을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서 중복하여 배우게 되는 문제와 함께 판소리계 소설과 판소리 사설을 비교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앴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26) 김진희,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30-31쪽 참조.

제 6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국정 교과서에서는 <춘향전>이 소설 형태로 ‘작자, 작품, 독자’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곧 춘향전이 작자 미상이고 적층문학이라는 점을 통해서 작자와 작품 그리고 독자와의 관계를 공부하도록 설정된 것이다. 같은 작품이라도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독자와 마찬가지로 작자의 개성에 따라 그 작품의 세계가 달라진다. 그러나 작자와 독자는 모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그들 또한 그 시대의 삶과 문화의 방식을 따르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보면 보편성의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 이처럼 개성적이면서 또한 보편적인

또의 생일잔치 부분부터 끝까지가 실렸음을 볼 수 있다. 또한 5차 교육과정에서만 판소리 <춘향가>가 수록되었고, 다른 교육과정에서는 84장본 완판본인 <열녀춘향수절가>를 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국어(하)에서의 교육 내용 분석 및 방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 문화에 대해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학습 활동을 통해 전통의 계승 정신을 내면화하기란 더욱 어렵다²⁷⁾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7단원 전통과 창조’에서는 먼저 구체적인 문학 작품을 제재로 하여 학습자들이 그 제재에서 전통의 본질에 부합하는 국면을 찾아내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현재적 관점에서 응용할 수 있게 하였다.²⁸⁾ 그리고 각각의 작품이 이 단원의 취지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⁹⁾

대단원의 학습목표

- ① 우리 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②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기른다.
- ③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른다.

<춘향전>은 이 단원의 첫 번째로 나오는 소단원으로, 소단원에 따른 학

존재로서의 작자와 독자가 작품의 창작과 이해, 감상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라 할 수 있다.

27)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2002, 330쪽.

28)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2002, 330쪽.

29)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하) 교과서>, 2002, 295쪽.

습목표는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구성 취지나 학습활동의 내용을 보면,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춘향전>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1) 구성 취지 및 수록 현황

이 단원은 <춘향전>을 제시하여, 전통의 구체적인 실례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전통의 본질에 부합하는 국면을 추출하는 학습 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단순히 <춘향전>을 문학 갈래로서 고전 소설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언어 자료로서 교과서 수록 부분이 보여주는 인물들이 재치와 해학, 표현 방식의 묘미, 인간성을 존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등 주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인 부분들을 찾아보게 하고, 이를 활동 속에서 학습자들이 내면화할 수 있게 하였다.³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전통이 막연히 어렵고 쓸모없으며 골치 아픈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이나 사고에 내재해 있는 가치 있는 속성임을 이해할 수 있다.

2) 국어 교과서의 <춘향전> 교육 내용 분석

일반적으로 국어 교과서의 구성은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학습목표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춘향전>을 통해 학습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30)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2002, 330쪽.

<표 2> 주요 내용 및 활동

| | |
|----|---|
|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일반적 특성 · 작품에 나타난 전통적 사유의 특성 · 작품에 나타난 전통적 표현의 특성 · 전통의 창조적 계승 방법 |
|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나타난 표현 기법을 활용한 말하기와 글쓰기 · 작품에 나타난 전통적 사유를 찾고 설명하기 · 전통의 창조적 계승 사례 조사하기 |

이렇게 목표를 구체화시킨 이해와 활동 영역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본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것은 학습활동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대단원 학습 목표, 학습-교수 계획, 학습활동이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³¹⁾

현재 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춘향전> 부분³²⁾은, 변학도의 생일잔치부터 끝부분까지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재의 내용 구성³³⁾

| | |
|------------------|---|
| 변학도 생일 잔치와 이도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학도의 사치스러운 생일 잔치 준비. - 출도를 기다리며 백성을 걱정하는 이도령. |
| 탐관오리에 대한 이도령의 풍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관오리를 풍자하는 이도령의 한시 소개. - 재치 있는 운봉과 탐욕스런 변학도의 대조. |
| 이도령의 암행어사 변신과 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행어사 출도 직전의 긴장된 분위기. - 어사 출도와 허둥대는 변학도 조롱. |
| 춘향과 이도령의 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사또의 춘향에 대한 절개 시험. - 춘향과 어사또 이도령의 재회. |
| 이도령과 춘향의 백년 동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향의 야단스러운 고향 작별 인사. - 이도령과 춘향의 후일담. |

31) 우창호, <모둠 토의수업을 통한 <춘향전> 지도 연구>, 《고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373쪽.

32) <표 1> 참고

33)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2002. 330쪽.

이 단원에서는 <춘향전>이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서 갖는 문화적 특성과 현재적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야 한다. 이 작품은 단순히 훈고학적인 주석만을 자세히 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문에 주입식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학습자들에게 지루한 느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춘향전>에 나타난 여러 특질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러한 사고 활동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수업 내용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춘향전>의 문체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운문체와 산문체의 중간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말하듯 글을 쓰는 전자 매체의 언어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민중성을 통해 양반 계급을 풍자하고 소설 속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자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감 있는 표현을 통해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는 오늘날의 표현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춘향과 이 도령의 사랑이라는 주제도 역경을 이겨 낸 사랑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허무주의와 패배적 사고가 팽배한 오늘날에 유용한 정신적 가치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의 창조적 활용 방안에 유의하여 <춘향전>을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34)

현재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구성은 ‘단원의 길잡이-준비 학습-소단원 학습- 단원의 마무리- 보충·심화 학습’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중 소단원 학습은 활동 중심의 원칙에 의거하여 학습목표에 필요한 제재와 ‘학습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아두기’ 항목을 제재 중간에 두어 학습활동의 수행에 요구되는 개념적·방법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학습활동’ 역시 제재 중간에 배치하여 제재의 구체적 국면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단원 학습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⁵⁾ 즉 학습 활동은

34)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 (하) 지도서>, 2002, 331쪽.

한 단원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지적 향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을 이해하고, 학습활동을 한 개씩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춘향전>에서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아두기 1> 인간다운 추구의 전통

<학습활동(1)>

1. (혼자하기) ‘등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인가’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구절에 함축된 속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교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자.

2. (혼자하기) 이몽룡이 지었다는 시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시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이 시에 담겨 있는 인간 존중의 전통을 설명해 보자.

3. (혼자하기)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 마음에 드는 표현을 골라 그 표현법을 모방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표현해 보자.

<알아두기 2>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방법

<학습활동(2)>

1. (혼자하기) 다음 표현 중 하나를 모방하여 주변의 상황이나 행위를 표현해 보자.

35)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하) 교과서>, 2002, 3-4쪽 참조.

· 인케 잃고 과줄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 총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2. (함께하기) <춘향전>을 변형하여 만든 작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서로 비교해보자.

‘알아두기’는 제재를 읽어가는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고자 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개념이나 명제 등을 지면의 하단에 상세하게 풀이하였고, ‘학습활동’은 제재의 중간 중간에 제시하여 모두 읽은 뒤에는 물론이고 읽어가는데 도중에도 학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 읽기를 도모하도록 하였다.³⁶⁾ ‘알아두기’가 학습 목표의 포괄적인 내용이라면, ‘학습활동’은 이를 세부적으로 나눈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와 달리 교사용 지도서의 ‘알아두기’에는 ‘교수· 학습 이론’의 해당 이론 체계에 따른 관련 자료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관련된 서적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⁷⁾ 이러한 제시는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학습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말의 해학성이 강조되는 표현 기법을 많이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학습활동 (1)>의 1번, 3번, <학습활동(2)>의 1번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습활동(2)’에 제시된 예문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예시의 선정과 반복을 통한 강조, 대구와 대조를 통한 자기주장 강화 등을 묻는 문제이다. 이것은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기른다’³⁸⁾와 부합한다. 즉 <춘향전>의 표현상의 특징을 익히면서 그것을 학습

36)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2002, 34쪽.

37)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2002, 45쪽.

자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여, 주체적인 문학 활동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목표가 세 가지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표현방식의 묘미를 찾는 것에 편승되어 있고, <춘향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다시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표현법을 모방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표현해 보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현법을 제대로 알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창작활동이 좀 더 다양하게 제시되어 이 점을 보완한다면 학습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근원설화→관소리→관소리계 소설’의 전승과정을 고려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점도 아쉽다.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춘향전>의 향유층 및 전승방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어’ 교과서에 경우에는 이 점이 간과되었는데, 이는 단원의 특성상 ‘표현’ 면에 치우쳐 학습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학’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문학’ 과목은 선택 과목이므로, 문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국어’ 교과서가 고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국어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승과정에 관련된 문제는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보충 학습 자료로 충분히 실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습활동(2)> 2번은 상호텍스트 관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학습활동은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보통 다른 장르의 작품과 비교하거나, 같은 장르의 다른 작품, 혹은 인쇄매체, 영상매체와의

38) 본고 15쪽 대단원 학습목표 참고.

비교하는 등이 일반적이다.

2번과 같이 고전의 작품을 현대의 작품과 연계하여 살펴보는 방법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춘향전>이 다양하게 변형되었음을 인지하고 직접 조사하면서, 전통의 창조적 계승의 예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된다. 또 학습자들은 그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춘향전>이라는 고전의 창의적인 작품 해석을 통해 새롭게 변용될 수 있음도 이해하게 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활동 뒤에 학습자 스스로가 <춘향전>을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시나 패러디 소설을 써본다든지,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토론을 해본다든지,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등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의 제시가 없을 때는 학습이 <춘향전>을 소재로 한 현대 작품의 나열로만 머무를 수 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내면화 단계’도 완전히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3) 학습방안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특히 언어 자료(음성 언어, 문자 언어, 시각 언어)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 자신의 사상이나 정서, 사고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것뿐 아니라 음성언어나 시각 언어로 표현된 언어 자료를 학습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듣기 테이프, 매체를 통한 언어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 또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사상이나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활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과제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절차와 주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사전 지식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학습활동이 필요한지, 그것은 무엇을 통해 피드백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³⁹⁾

현재 국어 교과서에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⁴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학습에 대한 학습활동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보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교사가 보충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 <춘향전> 재창작하기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구비문학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즉, 민중성, 유동성, 적층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춘향전>에

39) 교육부,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1999. 137쪽. 참조.

40)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 (하) 교사용 지도서>, 2002, 322쪽~323쪽 참조.

전통에 대해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학습 활동을 통해 전통의 계승 정신을 내면화하기란 더욱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먼저 구체적 문학 작품을 제재로 하여 학습자들이 그 제재에서 전통의 본질에 부합하는 국면을 찾아내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현재적 관점에서 응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전통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 문화가 지니고 있는 전통의 본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해 전통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과 이어져 있는 과거의 문화 양식이라는 것을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창의적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 활동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 글쓰기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중한 교육활동이다.

는 특정 개인작이라기보다 민중이 작가이자 독자이기도 한 집단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교육적으로 수용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의 방법적인 면에서 개정 강조점을 살펴보면, 방법상에서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작과 모작, 생활 서정 표현이다. 개작은 작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일부 요소를 바꾸어 다시 쓰는 것으로 관점이나 인물, 시점, 배경, 결말 등을 바꾸어 패러디하는 방식이 전형적이고, 모작은 작품의 분위기와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 쓰는 것이다. 생활 서정표현은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를 짧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춘향전>을 다시 써 보도록 하는 것이다. <춘향전>의 주요 모티프는 ‘만남→사랑→이별→시련→성취’이다. 이것을 중심 골격으로 하여 관점이나 인물, 시점, 배경, 결말 등을 바꾸어 패러디한다면,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춘향전>을 접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춘향기와 이몽룡이 되어 현대판으로 <춘향전>을 새롭게 써보는 모작 행위이다. 시대적 배경은 현대로, 공간적 배경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이 등장인물이 되어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새롭게 재창작한 <춘향전>과 원작 <춘향전>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당시 춘향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재창작을 위해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고민하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 이 때 교사는 기초적인 플롯의 틀만을 제시하고 최대한 새롭고 참신한 재창작의 과정을 학습자가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시 1> 현대판으로 재창작하기(개별 활동)

- 자신이 재창작할 내용을 인물, 사건, 배경에 맞추어 제시하시오.

| | | 설정 | 설정 이유 |
|----|-----|----|-------|
| 인물 | 춘향 | | |
| | 이몽룡 | | |
| | 월매 | | |
| | 향단 | | |
| | 방자 | | |
| 사건 | | | |
| 배경 | | | |

<예시답안>

| | | 설정 | 설정 이유 |
|----|-----|---------------------|--|
| 인물 | 춘향 | 아름다운 시골 처녀 | 시골 처녀로 설정하여 남원에 있는 춘향의 모습과 비슷하게 설정. |
| | 이몽룡 | 시골 학교로 부임해 온 총각 선생님 | 시골학교에 부임하는 총각 선생님이 생님으로 설정함으로써 춘향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
| | 월매 | 시골 처녀 춘향의 어머니 | 춘향의 어머니로 설정함으로써 '월매'가 지닌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음. |

| | | | |
|----|--|--------------------------------|---|
| | 향단 | 춘향의 여동생으로 학교에 다님. | 원작에서는 춘향의 몸종이었으나 연극에서는 춘향과 선생님이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함. |
| | 방자 | 이몽룡 선생님의 학교에 근무하는 활달한 성격의 선생님. | 원작에서는 이몽룡의 하인이었으나 연극에서는 선생님의 학교 동료로 설정하여 인물의 다양성 추구함. |
| 사건 | 총각 선생님(이몽룡)이 부임하자 조용한 시골은 소란스러워진다. 이즈음 시골 학교에 다니는 춘향의 동생이 친구들과 놀다 학교에 지각하게 되고 이 일로 춘향의 집에 총각 선생님이 방문하게 된다. 총각 선생님과 춘향은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 후일을 약속한다. 그러나 얼마 후 선생님은 급작스럽게 도시로 전근을 가게 된다. | | |
| 배경 | 산업화에 밀려나 있는 조용한 시골과 그 시골에 있는 학교. | | |

<예시 1>의 경우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춘향전>을 현대판으로 재창작하는 것이다. 원작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배경을 현대화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이를 적절하게 바꾸어 보도록 한다. 수업 시간이 3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야기 전체를 다시 짜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짧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 방법은 학습활동 마지막 문제인 ‘2. (함께하기) <춘향전>을 변형하여 만든 작품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서로 비교해보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활동으로 기존에 변형된 작품과의 비교와 함께 재창작하기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수행평가에 이용할 수도 있다. 수행평가는 위와 같이 개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다음에 제시하는 모둠별 수업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예시 2> 현대판으로 재창작하기(모둠활동)

모듬이름: 춘향지기(발표)

춘향은 신인가수이고 몽룡은 춘향의 매니저이다, 둘은 서로 사랑을 했는데, 몽룡은 자신이 춘향에게 너무 부족한 존재라 생각하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춘향을 남기고 떠나버린다, 그 틈을 타서 평소에 춘향에게 관심을 가지고 춘향을 지켜보던 기획사 사장인 변학도가 접근한다, 그리고 춘향을 키워주겠다는 핑계로 춘향을 계속 만난다, 그러다가 결국 변학도와 혼인관계에 놓이게 되고, 춘향은 몽룡만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몽룡이 춘향의 앞에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쯤 변학도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변학도는 멀리 도망을 가버린다, 몽룡의 도움으로 춘향은 다시 서게 되고 대스타로 성공한다, 그렇게 해서 몽룡과 춘향은 다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

<다른 모듬의 평가지>

① 구성내용

배경: _____

등장인물: _____

주제: _____

② 인물의 성격

몽룡 _____

·춘향 _____

·변학도 _____

③ 원래 춘향전과 현대판 춘향전에서 달라진 점

④ 한계점

< 예시답안 >

① 구성내용

배경: 2000년 한국의 서울

등장인물: 변학도, 성춘향, 이몽룡

주제: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절개

=> 춘향을 향한 이몽룡의 사랑과 노력에 의한 빈부차의 초월,

② 인물의 성격

·몽룡: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는 성공한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다.

·춘향: 노력은 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극복하려는 의지 대신 그 상황에 복종하는 인물. 복종적, 수동적이고 의지가 약하다.

·변학도: 무책임하다(∵ 춘향을 두고 도망감)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 사람을 부로써 접근)

⇒ 내용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서 인위적으로 향단, 월매, 방자를 극중에서 제외시켰다.

③ 원래 춘향전과 현대판 춘향전에서 달라진 점

- 과거의 사회상: 신분제가 공존함 → 입신양명
 - 현대판 춘향전에서의 사회상: 빈부차 → 상업적 성공
- ⇒과거의 춘향전은 춘향이의 꿈은 절개가 부각되었으나 현대판에선 이몽룡의 절개가 부각,

④ 한계점-원작<춘향전>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는 남존여비의 태도가 극복되지 않고 더 심화되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의 갈등이 사라져서, 극 중 갈등을 심화 시키기 위해 빈부의 격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극의 중심이 몽룡으로 이동하는 등의 작품의 변질이 행해졌다.

<예시 2>의 경우는 <예시 1>과 마찬가지로 <춘향전>을 재창작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모둠활동으로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며, 각각의 조는 역할극 등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모둠 활동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교사가 정해진 일정한 기준, 즉 구성내용, 인물의 성격, 원작과 달라진 점, 한계점 등을 기준으로 다른 모둠의 재창작 내용을 정리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 모둠의 발표 이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 또 이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효과 외에도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 기준이 보다 객관적이라는 신뢰성도 획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학습자 스스로가 하는 다양한 활동이 끝난 후,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춘향전>의 모티프가 재창작되어 온 여러 사례를 보여주어 고전이 새롭게 해석되고 전승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표 4> <춘향전>을 모티프로 재창작된 작품들.

① **현대시**⁴¹⁾ : 강우식의 <탈춤2>, 김기진의 <대수풀 우거진 곳>, 김영랑의 <춘향>, <두견>, 김춘수의 <집1>, 노천명의 <춘향>, 박재삼의 <춘향이 마음>, 박희진의 <한국어를 기리는 노래>, 서정주의 <추천사>, <다시 밝은 날에>, <춘향유문>, 송수권의 <춘향이 생각>, 이태극의 <소리 8>, 전봉건의 <춘향연가>, 정완영의 <황국>, 최석하의 <죽(竹)>, 최하림의 <춘향비가> 등

② **신소설** : 이해조의 <옥중화>(1912)

③ **현대소설** :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1925~1926), 이주홍의 <탈선 춘향전>(1951), 임철우의 <옥중가>(1991), 김주영의 <외설 춘향전>(1994), 최인훈의 <춘향던>(1996) 등

④ **드라마** : <쾌걸 춘향>(2004)

⑤ **창극**⁴²⁾ :

창극정립위원회본(1), <창극 춘향가>(20마당), 박진 연출, 국립창극단 15회, 1970.

창극정립위원회본(2), <창극 춘향전>(1부 6장, 2부 8장), 이진순 연출, 국립창극단 16회, 1971.

이원경(1), <춘향전>(4막 21장), 이원경 연출, 국립창극단 24회, 1976.

이원경(2), <대춘향전>(5막 10장), 이원경 연출, 국립창극단 32회, 1980.

허규, <춘향가>(14장), 허규 연출, 국립창극단 58회, 1987.

⑥ **영화**⁴³⁾ : 연쇄극 <춘향전>(1922), 만고열녀 <춘향전>(1923), 유봉렬의 <춘향전>(?), 발성영화 <춘향전>(1935), 일본 감독의 <춘향전>(?), 해방 후 최초 <춘향전>(1955), 김향의 <대춘향전>(1957), 이병

일의 <춘향전>(1958), 이경춘의 <탈선 춘향전>(1960), 홍성기의 <춘향전>(1961), 신상옥의 <성춘향>(1961), 이동훈의 <한양에서 온 성춘향>(1963), 이성구의 <춘향전>(1971), 이형표의 <방자와 향단이>(1972), 박태원의 <성춘향전>(1976), 한상훈의 <성춘향>(1987), ANDY KIM의 만화 <성춘향뎐>(1999), 임권택의 <춘향뎐>(2000), 김용옥의 <새춘향뎐>(사나리오)⁴⁴⁾(1987) 등

⑦ 연극⁴⁵⁾: 유치진의 <춘향전>(1936), 김용락의 <방자놀이>(1884), 장윤환의 <여시아문>(1996), 이근삼의 <춘향아, 춘향아>(1996), 장소현의 <춘향이 없는 춘향전>(1996), 오태석의 <기생비생 춘향전>(2002) 등.

위의 갈래 중, 학생들이 모두 토의수업에 쉽고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현대시, 현대소설, 드라마이다. <춘향전>을 현대시로 바꾼 시인들은 그 변용 양식과 형상화된 춘향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⁴⁶⁾ 그리고 <춘향전>을 현대소설(<일설 춘향전>, <춘향뎐>, <외설 춘향전>, <옥중가>등)과 공연예술(뮤지컬 <성춘향>, 텔레비전 마당놀이 <방자전>, 창작

41) 이상숙,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 전통논의의 양상」, 《국어국문학》 제120호, 국어국문학회, 1997, 375~376쪽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42) 백현미, 「창극 <춘향전>의 공연사와 양식상의 특징」, 《고전희곡연구》 제6집, 한국고전희곡학회, 2003 에서 참고함.

43) 김수남, 「'춘향영화'의 제작사와 양식적 특징에 대한 고찰」, 《고전희곡연구》 제6집, 한국고전희곡학회, 2003에서 참고함.

44) 김용옥은 <새춘향뎐>이란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이것이 영화화되지는 않았다. 김용옥, <새춘향뎐>, 통나무, 1987.

45) 이미원, 「현대극의 <춘향전> 수용」, 《고전희곡연구》 제6집, 한국고전희곡학회, 2003 에서 참고함.

46) 김홍규, <춘향-천의 얼굴> 김병국 외 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광학술자료사, 1994, 256쪽. 이 논문에서는 박재삼의 <춘향이 마음>, 서정주의 <춘향의 말>, 전봉건의 <춘향 연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마당극 <방자전>, 민속가극 <춘향전>)로 바뀌면서 전승의 시대적 의미를
찾은 것⁴⁷⁾도 있다.

<예시 3>

춘향

김영랑

큰 칼 쓰고 옥(獄)에 든 춘향이는
제 마음이 그리도 독했던가 놀래었다
성문이 부서져도 이 악물고
사또를 노려보던 교만한 눈
그 옛날 성학사(成學士) 박팽년(朴彭年)이
오불지짐에도 태연하였음을 알았었니라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원통코 독한 마음 잠과 꿈을 이뤘으랴
옥방(獄房) 첫날밤은 길고도 무서워라
서름이 사무치고 지쳐 쓰러지면
남강(南江)의 외론 혼(魂)은 불리어 나왔느니
논개(論介)! 어린 춘향을 꼭 안아
밤새워 마음과 살을 어루만지다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사랑이 무엇이기
정절(貞節)이 무엇이기
그 때문에 꽃의 춘향 그만 옥사(獄死)한단말가
지네 구렁이 같은 변학도(卞學徒)의
흉칙한 얼굴에 까무러쳐도
어린 가슴 달콤히 지켜주는 도련님 생각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47) 전영선, <고전소설의 현대적 수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72쪽.

상하고 멍든 자리 마디마디 문지르며
눈물은 타고 남은 간을 젖어 내렸다
버들잎이 창살에 선뜻 스치는 날도
도련님 말방울 소리는 아니 들렸다
삼경(三更)을 세오다가 그는 고만 단장(斷腸)하다
두견이 울어 두견이 울어 남원(南原) 고을도 깨어지고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깊은 겨울 밤 비바람은 우루루루
피칠해 눈 옥 창살을 들이치는데
옥 죽음한 원귀들이 구석구석에 희희 울어
청절(淸節) 춘향도 혼을 잃고 몸을 버려 버렸다.
밤새도록 까무러치고
해돋을 녘 깨어나다.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믿고 바라고 눈 아프게 보고 싶던 도련님이
죽기 전에 와 주셨다 춘향은 살았구나
쭉대머리 귀신 얼굴 된 춘향이 보고
이도령은 잔인스레 웃었다. 저 때문에 정절(貞節)이 자랑스러워
"우리 집이 팍 망해서 상거지가 되었지야."
틀림없는 도련님, 춘향은 원망도 안했니라.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모진 춘향이 그 밤 새벽에 또 까무러쳐서는
영 다시 깨어나진 못했었다. 두견은 울었건만
도련님 다시 뵈어 한은 풀었으나 살아날 가망은 아주 끊기고
원뎀 푸른 맥도 핵 풀려 버렸을 법
출도 끝에 어사는 춘향의 몸을 거두며 울다
"내 변가보다 잔인 무지하여 춘향을 죽였구나"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1. 위에 제시된 김영랑의 춘향을 <춘향전>과 비교 분석하여, 문학적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파악하여 정리해 보자.

→ 이러한 변형은 김영랑이 개인 감정의 격렬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현대 서정 시인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춘향의 사랑이 원작에서와 같이 쉽게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을 시인은 불만스럽게 느꼈는지도 모른다. 춘향의 죽음을 통해 변학도의 포악함에 대한 비난이 강화되고,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은 승고해진다.

춘향유문

서정주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땀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붓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2. 위에 제시된 서정주의 <춘향유문>을 <춘향전>과 비교 분석하여 문학적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파악하여 정리해 보자.

→ 춘향은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죽음이 이도령과 자신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할 것임을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구름과 소나기가 되어 사랑하는 님의 곁에 함께 있겠다는 것이다, 이는 춘향의 죽음이 단순히 슬픈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김영랑의 '춘향' 과 달리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의 힘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춘향전' 의 현대적 재창조로 평가받을 만한 작품이다.

추천사

서정주

향단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 듯한(뇌이 듯한) 풀꽃데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도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여기서는 이도령이 나타나지 않고 춘향의 사랑도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 그녀가 하늘을 향해 밀어 올려지는 사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이 작품을 쓴 서정주 시인은 춘향을 빌어 자신의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전 작품에서 소재만을 차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전통을 계승하는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한민족에 친숙한 춘향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어 인간의 보편적인 초월 욕구를 영상화 한 것은 분명히 흥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위의 활동은 ‘국어’ 교과서에서 살펴보면 <학습활동(2)> 2번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에서 춘향 모티프를 소재로 한 시의 언급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확장하여 활동지를 만든 것이다. 교사는 각각의 작품을 제시할 때 여러 작품의 나열이 아닌, 그 작품의 전승 관점을 함께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또는 학습자 스스로 그 전승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수업의 도입이나 정리 부분에서 <표 4>와 같이 춘향을 모티프로 한 다양한 자료들을 오디오나 비디오, PPT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2) <춘향전> 뒤집어보기

국어 교과서에서 <춘향전>이 실려 있는 부분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과 창조’라는 부분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학습목표가 ‘작품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태도’⁴⁸⁾를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 보면서 새롭게 작품을 인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춘향전>의 주요 인물은 성춘향, 이몽룡, 변사또 이렇게 세 명이다. 이들의 성격은 작품이 잘 알려진 만큼 이미 전형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인물을 부정적으로 비판해 보거나, 부정적 인물을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등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새로운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성춘향을 기생이라는 신분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성춘향은 정신과 관능의 양면성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서 일부종사를 바라고 이를 성취한다. 그네를 뛰다 이몽룡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춘향은 본능적이다. 그러나 이몽룡과 이별하고 변학도의 유혹을 받아 갖은 폭력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몽룡을 기다리는 옥중의 춘향은 끝내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정절의 여인으로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격된다. 이런 춘향의 열녀적인 모습을 작품에서는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당대의 법 즉, 기생의 조건에서 살펴볼 때, 춘향의 행동이 과연 설득력이 있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춘향은 은퇴한 기생 월매와 양반 성 참봉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선조까지의 신분제도에서는 ‘노비수모법(奴婢隨母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이더라도, 그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했다. 그 당시 기생은 네 개의 천한 계급(승려, 상민, 노비, 기생) 중의 하나로, 기생의 딸은 기생, 노비의 자식은 노비 말고는 어떤 것도 될 수 없었다.⁴⁹⁾ 따라서

48) 본고 15쪽 대단원 학습목표 참조.

본래 성춘향은 과거에 급제한 암행어사 이몽룡과 혼인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 즉, 춘향이 이몽룡에게 정식적인 혼인을 요구한 것이나,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것 모두 그녀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열녀의식에 가리어 그녀의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생의 조건에서 춘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학습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는 새로운 방향에서 주인공을 비판해 볼 수도 있고, 나아가 그녀의 성격이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당대의 민중의 욕구, 즉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가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두 번째로 이몽룡을 남녀 간의 애정문제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이몽룡은 대대로 명문 가문의 자제로 춘향과의 신분적 격차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며, 춘향을 위하여 암행어사 출도라는 현실적인 투쟁을 한다. 이렇게 이몽룡은 <춘향전>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하지만 남녀간의 애정문제에 국한해서 이몽룡이 책임을 다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리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몽룡이 부모의 뜻으로 한양으로 갈 때 춘향과 정식 혼인을 하지 않은 채 버리고 간 점은 비판을 받을만하며, 또 한양에 있는 동안 남원에 있는 춘향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또한 춘향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몽룡의 행동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극에 달한다. 탐관오리를 징벌한 후에 이몽룡은 춘향을 끝까지 시험한다. 이미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갖은 수모를 겪고 절박한 춘향에게 고통을 계속 주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봄으로써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이몽룡이 과연 춘향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인물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학습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물을 살펴보면서 작품

49) 가와무라 미나토, 유재순 옮김, <말하는 꽃 기생>, 소담출판사, 2002 116-122쪽 참조.

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사또를 사회적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춘향전>에서 변사또라는 인물은 항상 부정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변사또는 춘향을 시련에 빠지게 하는 인물로, 때로는 사회적 인물로 확대되어 민중을 괴롭히는 목민관으로, 작품 속에서도, <춘향전>을 읽는 독자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인물이다. 이런 변사또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그를 두고 토론해 보거나 모의재판의 형식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변사또를 옹호하는 모둠과 변사또를 비판하는 모둠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시키거나, 역할극⁵⁰⁾의 형식으로 모의재판을 열어보는 것이다. 이미 부정적 인물이라고 결론이 내려진 변사또를 거꾸로 변론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고정관념을 깨고 더 많은 탐구를 하게 된다. 변사또가 그 시대 상황에서 춘향에게 요구했던 것이 정말 부당한 일이었는지,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관리들이 탐관오리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점은 없었는지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는 변사또를 변론하기 위해서, 또는 비판하기 위해서 당대의 기생 제도나 과거제도, 신분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당대 사회의 충분한 인식이 있다면, 좀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지식의 향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작품의 창의적인 재해석이 가능해지며, 작품의 내용이 그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시대상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습목표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50) 이성호, <교수방법론>, 학지사, 2003, 295쪽.

-역할극은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규칙도, 경쟁도 없는 지극히 자유로운 놀이와 토의방법이다. 특히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할극을 교실 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경제적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예시 1>

한 개의 학급이 6개의 모둠을 형성한다.

6개의 모둠이 다시 2개씩 짝을 이루어 성춘향, 이몽룡, 변학도 중 하나의 인물을 갖고 논의하기로 결정한다.

한 개의 모둠은 옹호하는 입장에서, 다른 하나의 모둠은 비판하는 입장에서 토의하여 의견을 정리한다.

단, 단 교사는 이때 어느 입장에서 비판해 볼 것인지 기준을 제시한다.

[성춘향 비판하기]

· 당시 기생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춘향의 신분은 무엇인가?

→ 춘향은 기생 월매의 딸이므로 어머니의 신분을 이어받아 기생이다.

· 춘향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춘향의 행동은 바람직한가?

→ 바람직하지 못하다.

·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 춘향이 이몽룡에게 정식적인 혼인을 요구한 것이나,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것 모두 그녀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춘향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민중의 의식을 짐작해 볼 수 있나? 그렇다면 그 의식은 과연 무엇인가?

→ 조선후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조선전기보다 떨어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서민의식은 성장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서민의 의식이 반영된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신분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교사회에서 중요시하는 충, 효, 열을 지킨다면 서민도 양반과 혼인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 것이다.

<예시 2>

[변학도의 모의재판]

6개의 모둠 중 반은 변학도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반은 변학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모으도록 한다. 단 2개의 모둠씩 보는 관점을 달리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① 1,4 모둠: 당시 시대상황과 연관

· 당시 시대상황에서 변학도의 행동이 부당한 것인가?

그에 관련하여 이유도 제시해 보자.

② 2, 5모둠: 변학도의 인간적인 측면 고려.

·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 변학도의 행동이 단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극악무도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성춘향에 대한 관심이 잘못 발현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

그리고 이러한 변학도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비판하여 보자.

<예시 1>은 주요인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인물에 대해 비판해 보는 활동이다. 이미 작품을 통해 익숙해 있는 인물을 비판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성춘향을 기생의 신분이란 제도적 입장에서 비판해본 것이다. 이런 질문지들은 교사가 직접 제시하여도 좋고,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다. 어느 쪽이든 학습자의 창의적인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활동

에서 주의할 점은 <추향전>이 가지는 원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 2>는 변학도란 인물을 두고 모의재판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변학도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예시 2>에 제시된 질문들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모의재판을 할 때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긍정하는 모둠과 부정하는 모둠을 나누어 서로의 주장과 근거를 내세워 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시 2>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토의의 방식이므로 굳이 예시답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사는 <예시 2>와 같이 몇 개의 화두를 던져놓아 학습자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스토리에 익숙해진 학습자에게 신선함을 주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이 관점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작품에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런 방법들을 참고하여 더 다양한 주제를 개발, 선택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2. 문학 교과서에서의 교육 내용 분석 및 방안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3학년은 심화 선택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연계되면서 단계별로 심화되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심화 선택하게 된다.⁵¹⁾ 심

51) 심치열,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 월인, 2005, 300쪽.

화 선택 과목은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으로 나뉜다.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습자의 선택여부에 따라 그 과목을 배울 수도, 안 배울 수도 있지만, 선택이 되었을 때에는 깊이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문학은 단위수가 8에 해당되는 비교적 중요한 과목이다.

<표 5> 제 7차 국어과 과목의 수업 단위 수

| 성격 | 국민기본공통 과목 | 일반선택 과목 | 심화선택과목 | | | | |
|-----|--------------|------------|--------|----|----|----|----|
| | | | 과목 | 과목 | 과목 | 과목 | 과목 |
| 과목 | 국어 | 국어생활 | 화법 | 독서 | 작문 | 문법 | 문학 |
| 단위수 | 8 | 4 | 4 | 8 | 8 | 4 | 8 |

‘문학’과목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제시⁵²⁾된다.

-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적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위에서 제시한 목표는 문학에 관한 지식, 문학의 수행 능력, 문학에 관한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공통기본 ‘국어’과목의 목표와 유기적인 상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 교과서의 공통적인 짜임새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문학 교과서의 구성

52) 교육부,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2002, 303쪽.

| 영역 | 내용 |
|-----------------|--|
| (1) 문학의 본질 |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
|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
| (3) 문학과 문화 |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
|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

대단원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하위분류로 위와 같은 내용을 소단원으로 구획하고 있다. 곧 지식 목표를 다룰 수 있는 문학의 본질, 수행 능력 목표를 다룰 수 있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 태도 목표를 다룰 수 있는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를 기본 영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문학과 교육을 바라보는 포괄적 관점 변화를 강조하여 문학과 문화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였다.⁵³⁾

1) 18종 문학 교과서 구성 취지 및 수록 현황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중 <춘향전>의 본문까지 실려 있는 것은 블랙박스_下⁵⁴⁾, 천재_上⁵⁵⁾, 지학(박)_下⁵⁶⁾, 청문각_下⁵⁷⁾ 총 4종이다. 작품의 중요성에

53) 교육부,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2002, 262~263쪽.

54)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下>, 블랙박스, 2003.

비해 적게 실려 있는 것은 이미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그 밖에 학습활동에 조금씩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디딤돌 上, 두산 上, 중앙 上, 상문 上, 지학(권) 下, 대한 下 등에 실려 있으나, <춘향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본문이 실려 있는 4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출판사 | 단원명 | 학습목표 | 본문내용 | 이본 |
|-----------|-------------------------------------|---|------------------------|----------------------------------|
| 블랙박스 下 | VIII.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 4.중세 후기 문학의 흐름 | <p><학습목표></p> <p>1. 중세 전기와 구별되는 중세 후기 문학의 특징을 이해한다.</p> <p>2. 중세 후기를 대표하는 문학의 갈래와 변모 양상을 안다.</p> <p>3. 중세 후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서와 세계관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안다.</p> <p><감상의 포인트></p> <p>1. 판소리 사설과 음악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p> <p>2. 판소리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생각하며 읽는다.</p> <p>3. 춘향전의 근원 설화가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다.</p> | 춘향이 변사또에게 불려가 매를 맞는 장면 | 열녀춘향 수절가 84장본 완판본 ⁵⁵⁾ |
| 천재 上 | III.소설의 수용과 | <p><소단원></p> <p>1. 구성의 의의와 역할</p> | 춘향과 이몽룡의 이별장면 | 열녀춘향 수절가 |

55)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上>, 천재교육, 2002.

56)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下>, (주)지학사, 2004.

57)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下>, 청문각, 2004.

| | | | | |
|--------|--|---|---|----------------------------|
| | 창작 2.소설의 시점과 구성 | 2. 소설 구성 요소 이해한다. 3.시점의 종류와 기능 이해한다. <학습주안점>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화자의 시점과 인물의 심리 이해한다. 그것이 작품에 기여하는 바를 알아본다. | | 84장본 완관본 |
| 지학(박)下 | I 문학과 문화 1.문화로서의 문학 | 1.국어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할 수 있다. 2.문학의 소통 과정에 작용한 규칙과 관습을 이해한다. | 이몽룡이 다시 춘향의 집을 찾는 장면부터 춘향과의 옥중 상봉하는 장면까지 | 열녀춘향 수절가 84장본 완관본 |
| 청문각 下 | II. 한국 문학의 흐름과 전통 3.조선시대 의 문학 | 1. 이 작품을 통해 판소리 계 특징을 안다. 2. 이 작품의 주제를 안다. | 춘향이 이몽룡과 광한루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 | 열녀춘향 수절가 84장본 완관본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려 있는 분포도는 교과서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습 목표는 판소리나 설화에 관련한 것이나 주제, 시점 등 내용적인 목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실려 있는 이본은 모두 <열녀춘향수절가> 완관본이지만, 실려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국어(하)에서 <춘향전>의 결말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8) 완관본 중 <열녀 춘향 수절가>가 가장 후대본으로, 춘향의 신분은 후대로 갈수록 기생에서 서녀로 지위가 상승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문학 교과서에서의 <춘향전> 교육 내용 분석

문학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와 달리 심화 선택 과정에 있는 교과이다. 즉, 학습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학습되는 과목이므로, 말 그대로 국어 교과서보다는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춘향전>의 경우는 국어 교과서에서 한 번 다뤄진 작품이므로 그보다는 더 심도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문학 교과서에서의 <춘향전>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실려 있다. 이것은 제1차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국어 교과서에서 모두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런 취지는 문학이 심화 학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 교과서에는 주로 판소리계 소설이 ‘근원설화→판소리→판소리계 소설’로 변화해간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학습활동이 특정 부분에 치우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1) 문학 교과서 블랙박스 下-춘향이 변사또에게 불려가 매를 맞는 장면

블랙박스 문학 교과서에서는 <춘향전>이 ‘Ⅷ.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 4.중세 후기 문학의 흐름’이라는 단원에 실려 있다. 이 단원은 문학의 내용체계⁵⁹⁾에서 살펴보면 (3) 문학과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문학과 문화’ 영역은 포괄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을 이해하고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양상을 살피는데 초점이 있다. 이 영역은 대체로 ‘~을 이해한다.’는 형

59) <표 5> 참조.

태로 기술하였지만, 지식보다는 활동을 통한 내면화를 더 강조한다.⁶⁰⁾ 따라서 학습목표나 학습활동이 이러한 취지에 맞춰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목표>

1. 중세 전기와 구별되는 중세 후기 문학의 특징을 이해한다.
2. 중세 후기를 대표하는 문학의 갈래와 변모 양상을 안다.
3. 중세 후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서와 세계관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안다.

<감상의 포인트>

1. 판소리 사설과 음악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
2. 판소리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생각하며 읽는다.
3. 춘향전의 근원 설화가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다.

블랙박스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큰 단원 ‘Ⅷ.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상의 포인트는 <춘향전>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소단원의 목표를 다시 살펴보면, 판소리계 소설이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보인다. 또 ‘활동을 통한 내면화’ 학습을 위해 근원설화를 통한 접근⁶¹⁾을 시도하고 있다. 목표가 이렇게 판소리

60) 교육부,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2002, 305쪽.

61) <춘향전>의 근원설화는 몇 가지로 나누어 추정할 수 있다.

① 열녀 설화(烈女說話) : 여자가 정절을 지켰다는 내용의 설화.

→ 《동국여지승람》 남원조(南原條)의 <지리산녀(智異山女)> 설화, 백제의 <도미설화> 등.

② 암행어사 설화 : 암행어사가 권력자나 부자의 횡포를 징치하고 약자의 한을 풀어 주었다는 내용의 설화.

→ <박문수(朴文秀) 설화>, <여진설화>, <김우항 설화>, <성이성 설화>, <이시발의 실계담> 등.

③ 추녀 신원(伸冤) 설화 :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랜 내용의 설화.

→ <남원 추색 설화> <박색 고개 전설>, <아랑 설화> 등.

④ 엄정(艷情) 설화 : 사랑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설화.

→ 《동야회집》의 <성세창(成世昌) 설화> (양반과 기생의 사랑)

⑤ 명경 옥지환(明鏡玉指環) 교환 설화 : 신물(信物) 교환을 내용으로 한 설화,

→ 중국의 <서상기(西廂記)> 등.

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습활동도 주로 이와 관계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활동 (1)>

1. 이 대목은 웃음을 유발하는 대목으로, 긴장감을 유발하는 작중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는 판소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학습활동 (2)>

1. 판소리계 소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이 점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춘향전의 근원 설화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설화→판소리→소설'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 다른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조사해 보자.

2. 판소리는 양반과 평민 모두에게서 사랑받은 예술이므로 판소리에는 평민적 세계관과 양반적 세계관이라는 세계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양면성을 설명해 보자.

3. 춘향이 매 맞는 부분은 판본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본문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처럼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를 판소리의 전승 과정에 비추어 설명해 보자.

블랙박스 교과서는 본문 중간에 학습활동(1)은 제시하고, 학습활동(2)는 본문이 끝난 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문이 끝나는 장 아래에는 학습도움 자료를 실었다. 학습 도움자료에는 작품의 전반적인 감상과 <춘향전>의 근원설화가 제시되어 있다. 학습활동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블랙박스 교과서에서는 <춘향전>이 판소리계 소설임을 감안하여 그것에 관련된 문제들

⑥ 관탈민녀 설화(官奪民女說話) : 관리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으려는 사건을 담은 설화 → <도미설화>, <지리산녀 설화>, <우렁색시 민담> 등.

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즉, ‘활동을 통한 내면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통해 학습목표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활동의 문제는 학습목표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근원설화를 밝혀 ‘근원설화→판소리→소설’로 계승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판본에 따라 같은 대목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도 알게 해주었다. 또 <학습활동(2)>의 2번 문제는 판소리가 상층과 하층이 모두 수용하고 즐겼던 장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학습활동이라고 여겨진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로 학습활동이 전승과정 전반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자체를 이해하는 학습활동의 제시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춘향전>에 나타난 판소리적 요소를 직접 찾아보는 문제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블랙박스 교과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1. 판소리 사설과 음악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

와 연결되는 학습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학습목표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학습활동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학 교과서 천재 上-춘향과 이몽룡의 이별장면

천재 문학 교과서에서는 <춘향전>이 ‘Ⅲ.소설의 수용과 창작 2.소설의 시점과 구성’에 실려 있다. 이 단원은 문학의 내용체계⁶²⁾에서 (2) 영역인 ‘문

학의 수용과 창작'에 해당한다. 이 영역은 문학 수용과 창작의 원리를 이해하며 실제로 문학 활동을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중 원리에 관한 내용 항목은 '~을 이해한다.'는 형태로 기술하여 문학 활동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고, 실제에 관한 내용 항목은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기술하여 문학 활동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⁶³⁾ 다시 말해 이 단원에서는 문학 그 자체에 관련된 활동이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학습목표>

1. 구성의 의의와 역할
2. 소설 구성 요소 이해한다.
3. 시점의 종류와 기능 이해한다.

<학습주안점>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화자의 시점과 인물의 심리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이 작품에 기여하는 바를 알아본다.

학습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천재 교과서는 <춘향전>을 소설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이나 시점,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은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문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이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학습활동>

(내용학습)

1. 중심사건을 찾고, 이 사건을 대하는 각 인물들의 입장이나 태도를 정리해보자.

62) <표 5> 참조.

63) 교육부, <7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2002, 305쪽.

2. 이 소설에서 사용된 시점의 종류를 모두 말해보자. 각각의 시점이 쓰인 부분 찾아보자.

3. 시점의 변화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말해보자.

4. 등장인물의 대사가 길게 서술되는 양상의 원인을 판소리 연행과 관련하여 말해보자.

(적용학습)

1. 판소리게 소설의 특징을 시점의 측면에서 일반화해서 말해보자.

2. 이 소설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런 구성상의 특징을 판소리게 소설이라는 장르와 관련하여 파악해보고 그것이 독자 혹은 청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말해보자.

3. 이몽룡과 춘향은 모두 10대 청소년들이다. 그런데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결연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부모의 입장에서 월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비판해 보자.

4.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몽룡'과 '춘향이'의 결연을 놓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창작활동)

1. 이몽룡이 서울로 간다는 말을 듣고 춘향이가 한 말을 전지적 시점으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천재 교과서는 본문 옆에 날개 지문으로 인물들의 성격과 시점을 물어보고 있으며, 본문이 끝난 후 '작품 수용의 길잡이'를 실어 이해를 돕고 있다. 또 판소리게 소설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인물의 성격, 시점, 판소리게 소설의 특징 등 <춘향전>을 소설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점의 경우, 소설 전반의 시점을 물은 것이 아니라, <춘향전>내에서 시점이

바뀌는 이유를 물어 보았다. 시점이 바뀌는 것은 판소리로 연행될 때의 특징인 ‘부분의 독자성’이 <춘향전>에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이 학습활동을 통해 <춘향전>이 판소리에 직접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천재 교과서에서는 창작학습까지 총 9개의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습목표에 맞춰, 내용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총 9문제 중, 시점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나 있는데, 사건에 대한 접근은 비슷한 비율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재 교과서는 <춘향전>을 소설적 요소들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소설의 구성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전 소설의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문에 제시된 부분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의 학습활동도 제시되어야 한다.

(3) 문학 교과서 지학사(박) 下-춘향과의 옥중 상봉하는 장면

지학사 교과서에서 <춘향전>은 ‘I 문학과 문화 1.문화로서의 문학’에 실려 있다. 단원명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블랙박스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단원 또한 문학의 ‘내용체계’에서 (3) 영역 문학과 문화에 속한다. 즉, 지식보다는 활동을 통한 내면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목표가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목표>

- 1.국어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창작할 수 있다.
- 2.문학의 소통 과정에 작용한 규칙과 관습을 이해한다.

지학사 교과서는 두 개의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다른 교과서와 달리 소단원 학습에 대한 목표가 따로 제시되지 않은 채, 두 개의 학습목표로 크게 아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목표에서는 ‘국어 문화’라는 말을 언급하여, 문화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바라볼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문학의 소통과정을 언급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했다. 지학사 교과서에서는 소단원의 학습 목표는 없기 때문에 학습활동을 보면서 계속 분석하도록 하겠다.

<학습활동>

(내용학습)

1. 춘향 모가 이도령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2. 이 글을 연극으로 꾸밀 경우, 방백으로 하여야 할 부분을 찾아서 처음과 끝 두 어절씩을 써라.
3. 이몽룡과 월매가 나누는 대화에서 두 사람이 말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그리고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문화적 관습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날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자.
4. 판소리 <춘향가>에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으로 그리고 신소설 <옥중화>로 재창조되어가는 과정을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자.
5. 오늘날 <춘향전>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불멸의 고전으로 전해져 오고 있지만, 소설 <춘향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학의 소통과정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창작학습)

6. 이 작품을 현대화하여 연극으로 공연한다고 할 때, 인물, 사건, 배경을 어떻게 설정할지 구상해 보자.

지학사 교과서는 날개 부분에 ‘생각해 보기 문제’를 제시하여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소설을 실은 뒤, 그 뒷장에 학습 자료로 춘향전의 문학성, 판소리계 소설과 문학의 소통에 관련한 자료도 같이 실어놓았다. 또 더 읽을거리로 <배비장전>과 <장끼전>을 제시하였다. 이 교과서에서는 인물들의 태도나 말하기 방식을 물었고, 특히 연극으로 설정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것은 이 소설이 사람들 앞에서 공연되던 판소리, 즉 공연물에서 온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승과정을 알아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신소설 <옥중화>와 비교하는 문제도 함께 실어놓았다. 지학사의 이러한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판소리계 소설의 전승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게 해준다. 또 고전문학이 현대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학습’ 1번 문제의 경우 소설의 구조적 측면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등장인물의 심리변화를 물어보는 것은 소설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합하다. 다만, ‘이도령과 춘향의 옥중 상봉’이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의 심리에 대해 묻는 문제는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두 번째로 ‘내용학습’ 2번 문제와 ‘창작학습’ 6번 문제는 <춘향전>을 연극적 요소와 연결시키는 활동이다. 판소리계 소설이 원래 판소리에서 온 것이고, 판소리는 연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연물인 연극과 연계시킨 것이다. 이 활동은 그동안 다양한 장르로 각색이 된 <춘향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영화나 연극으로 각색된 <춘향전>의 대본 등을 보충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 번째로 ‘내용학습’ 3번 문제를 보면, 이것은 두 번째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학습활동으로, 문학이 당대의 시대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에 상층의 말과 하층의 말이 달랐다는 것을 학습자는 3번의 학습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내용학습’ 4번과 5번 문제의 경우, <춘향전>이 계승되어온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지학사 교과서의 경우는 근원설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판소리와 신소설 <옥중화>를 언급하여 <춘향전>이 현대적으로 수용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점으로 보게 함으로써 적층문학의 성격을 가진 <춘향전>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면 우리는 지학사 교과서가 대체로 학습목표에 충실한 학습활동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창작활동을 할 때 학습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사실이다. 연극적 요소를 나누었다면 직접 그 역할에 맞추어 부분 연극을 해본다든가 하는 방법이 추가로 제시되는 것도 학습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문학 교과서 청문각 下-춘향이 이몽룡과 광한루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

청문각 교과서에서 <춘향전>은 ‘Ⅱ. 한국 문학의 흐름과 전통 3.조선시대의 문학’에 실려있다. 블랙박스 교과서, 천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의 ‘내용체계’에서는 (3) 영역 문학과 문화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따라서 이 단원도 지식보다는 활동을 통한 내면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통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

인할 수 있다.

청문각 교과서에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춘향전의 전반부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목표>

1. 이 작품을 통해 판소리계 특징을 안다.
2. 이 작품의 주제를 안다.

청문각 교과서에서는 학습목표가 매우 간단하게 나타나 있다. <춘향전>에 해당하는 소단원도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판소리계 특징과 주제를 인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문학의 ‘내용체계’에서 (3)영역에 속하므로 학습활동이 활동을 통한 내면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습활동>

(내용다지기)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배역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인물을 주변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
2. 이 작품에서 하층민의 말투와 상층민의 말투를 찾아보고, 그러한 표현을 한 이유를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목표다지기)

1. 이 작품에 나타나는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을 알아보자.
2. 다음은 ‘지귀설화’⁶⁴⁾이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춘향전>의 주제를 생각해

64) 일연,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2001, 308쪽.

마음의 불이 탑을 땀들다-지귀는 신라 활리역 사람이다. 선덕여왕의 아름다움과 수려함을 사모하여, 근심하며 울고 지내다가 물골이 초췌해졌다. 왕이 절에 행차하여 불공을 드리려는데, 듣고서는 그를 불렀다. 지귀는 절에 가 탑 아래에서 가마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왕은 팔찌를 빼서 가슴에 얹어두고 궁으로 돌아갔다. 나중에야 잠이 깨어 지귀는 간절히 번민하더니 이윽고 마음의 불이 일어나 그 탑을 땀들다가는 불귀신으로 변해버렸다. 왕이 술사에게 명하여 주문을

보자.

(내 것 만들기)

1. 다음은 판소리 <흥보가>의 일부분이다. 아래에 제시된 판소리 장단을 참고하여 ()안에 알맞은 판소리 장단을 써 보자. 그리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말해 보자.

판소리 장단

- **진양조**- 소리가 가장 느린 장단
- **휘모리**-소리기 빠른 장단
- **중모리**-소리가 중간 빠르기로 안정감을 준다.
- **중중모리**-흥취를 돋우며 우아한 맛이 있다.
- **자진모리**-섬세하면서도 명랑하고 차분하다.
- **엇모리**-평조음으로 평화스럽고 경쾌하다.

<흥보가> 中

(진양조) “시르렁 실근 당겨 주소. 에이여루 당기어라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에 밥이 포한이로구나. 에이 여루 당고어 주소.”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 “큰 자식은 저리가고, 톱째 놓은 이리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 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 살아나자. 에이 여루, 톱질이로구나.”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 “여보소, 마누라.” “예.” “ 톱 소리를 어서 받소.” “톱소리를 받자 한들 배가 고파 못 받겠소.” “ 배가 정 고프거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운차게 당겨 주소.”(중략)

() “시르렁 실근 톱질이야. 에이여루 당겨주소. 이 박통에 나오는 보화는 김제 만경 오야미들을 역십만 금을 주고 사고, 충청도 소사들은 수만 금을 주고 사니, 부익부가 되리로구나. 시르렁 실근 당기어라. 강상에 둥둥 떠 있는 배는 수 천 석을 싣고 간들 내 박 한 통을 당하더란 말이냐. 시르렁 실근 당기어라.

()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시르렁 시르렁 시

깃게 하니 이르기를, “지귀 마음 속의 불이 몸을 태워 불귀신이 되었도다. 창해 밖으로 띄워 보내 보지도 않고 서로 친하지도 않으리라.” 그 때 풍속에 이 글귀를 문간 벽에 붙여서 화재를 막았다. (心火繞塔-志鬼新羅活理驛人. 慕善德王美麗, 愚愁涕泣 形容憔悴. 王幸寺行香, 聞而召之. 志鬼歸塔下待駕行, 忽然睡酣. 王脫臂環 置胸還宮, 後乃睡覺, 志鬼悶絕良久 心火出繞其塔 卽變爲火鬼. 王命術士作呪詞曰: “志鬼心中火 燒身變火神. 流移滄海外 不見不相親.” 時俗帖此詞於門壁 以鎮火災.)

르렁 시르렁 식삭 식삭 식삭 콧 킁

(아니리) 탁 쪼개 노니 박통 속에서 온갖 비단이 나오는데, 옛 적 비단 이름은 다 이렇게 개겼었다.

(중중모리)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요간 부상 삼백척 번뒀다. 일광단, 고소대, 악양루의 적성 아미 월광단 <박창술창본>

청문각 교과서는 전체 줄거리를 실은 유일한 교과서이다. 다른 교과서가 이를 실지 않은 것은 워낙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실어주어 정확한 이야기의 흐름을 알게 하는 것도 고전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이외에도 중국의 미인이나 판본의 종류 등 다른 교과서에서 별로 다루고 있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끌려 노력하고 있다.

학습활동에서도 독특한 점이 보인다. 첫 번째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학습활동은 ‘목표 다지기’ 1번과 ‘내 것 만들기’ 문제 1번이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목표다지기’ 문제에서 먼저 이해하고, ‘내 것 만들기’에서 판소리 장단을 제시하여 판소리와와의 연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상황에 따라 판소리 장단을 넣어보는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판소리계 소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판소리계 소설과 비교하거나, 춘향을 소재로 한 변용 작품들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청문각 교과서에서는 <지귀설화>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것은 <춘향전>의 주제⁶⁵⁾ 중 하나인 ‘신분을 초월한 사랑’으로 보고 비교한 것이라 짐작된다.

청문각 교과서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바람직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 것 만들기’ 1번의 경우 본문에 <춘향가>가 실려있지 않은 만큼,

65) 경일남, <춘향전 교육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18-22쪽 참조.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춘향전>의 주제를 ① 춘향이의 정절, ② 이도령과 춘향 사이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③ 불의한 관리에 대한 서민의 항거,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다.

<홍보가> 대신 <춘향가>를 예문으로 제시하거나, <홍보가>와 <춘향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자가 배우는 작품이 <춘향전>인 만큼 다른 작품을 언급하기 앞서 <춘향가>의 한 대목을 짧게라도 언급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귀설화>와 비교해 놓은 부분이다. 이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귀설화>를 잘 모르는 학습자에게 또 다른 고전을 알릴 수 있다는 의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춘향전>의 주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주제를 알 수 있는 언급이나 보충설명이 같이 들어간다면 <춘향전>의 주제를 알리는데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문학 교과서는 교과서마다 추구하는 목표와 접근 방법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정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따르고 있으므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실제 교과서를 살펴보면 블랙박스과 지학사, 청문각 교과서는 ‘문학과 문화’ 단원에 포함되는 영역에 <춘향전>이 실려 있어, 당대 시대현실을 알 수 있는 학습활동이나, 판소리의 전승과정을 살펴보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천재 교과서의 경우 ‘문학의 수용과 창작’ 단원에 실려 있어 소설에 관련된 작품 내적 접근을 위주로 한 문제가 실려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종의 출판사 모두 춘향이 판소리계 소설임을 인식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교과서마다 날개 부분에 낱말의 주석을 달아, 학생들이 생소한 어휘를 찾는데 급급하여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 7차로 넘어오면서 발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춘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실어놓았다.

아쉬운 점은 너무 전반적인 판소리계 소설에 관련된 문제만을 출제하였다는 점과, 작품에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있다.

3) 학습방안

문학 교과서도 국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춘향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는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우선 <춘향전>이 이미 기본공통과정⁶⁶⁾에서 다루어졌음을 인식하고, 문학 교과서가 선택 교과로서의 활동을 맡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즉, 문학 교과서는 심화 학습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내용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학습자를 위한 것⁶⁷⁾이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와 수업 내용이 겹치지 않고, <춘향전>의 개괄적인 내용은 전시학습 확인의 차원 정도에서 학습자에게 상기시키고, 탐구 중심의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안 방법을 제시하였다.

(1) 다양한 장면 제시하기

고전 작품을 읽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및 기층성을 형성한 옛 선인들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을 제대로 읽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66)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下, 7 단원 전통과 창조의 소단원 (1) 단원에 제시.

67) 교육부,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1, 72쪽.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일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동화나 간략하게 축약된 고전, 줄거리 위주의 드라마가 아닌 원전 형태로 우리 고전 작품을 접해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결국 제대로 된 고전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서, 우리의 고전과 민족 문화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만 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조상의 지혜와 낭만을 표현한 작품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이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한글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번역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쉽게 읽고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전 작품도 낱말 풀이를 하는데 급급하거나 어휘에 주석이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너무 많아⁶⁸⁾ 한 눈에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일반인이나 학생들의 고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왜곡되어 있음도 결국 이러한 현상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고전을 원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물론 원본 그대로를 제시하는 것도 문학적·역사적 의의가 있겠지만, 학습자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짧은 수업시간에 어휘풀이가 아닌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해석본을 원문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비교해 보고, 한 발 더 나아가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았던 재미있는 부분들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68) 문학 교과서 블랙박스의 경우 4쪽으로 구성된 본문 안에 <춘향전>의 어휘풀이를 29개의 각주로 실어놓았고, 천재 교과서는 7쪽의 본문 안에 40개의 어휘풀이를, 지학사 교과서는 6쪽의 본문 안에 49개의 어휘풀이를, 청문각 교과서의 경우 6쪽의 본문 안에 62개의 어휘풀이를 각각 각주로 달아 실었다.

① 원문과의 비교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교과서와 문학 교과서 모두 <열녀 춘향 수절가> 원본을 실어놓았다. 이것은 문학적, 역사적으로는 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학습자가 고전작품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을 비교해 보자.

㉠ 방자놈 여쭙오되,

"설부화용이 남방(南方)에 유명기로 방(方) 첨사 병부사(兵備使) 군수(郡守) 현감(縣監) 관장(官長)님네 엄지발가락이 두 뺨 가웃씩 되는 양반 오입쟁이들도 무수히 보려 하되 장강의 색과 임사의 덕행(德行)이며, 이두의 문필이며 태사(太사)의 화순심(和順心)과 이비의 정절(貞節)을 품었으니 금천하지절색(今天下之絶色)이요 만고녀중군자(萬古女中君子)오니 황공하온 말씀으로 초래(招來)하기 어렵나이다.⁶⁹⁾

위의 지문은 청문각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의 한 부분이다. 한문이 많아 대강의 내용은 짐작이 가능하지만, 쉽게 읽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 제시되는 내용은 번역본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방자놈 여쭙오되,

“눈처럼 흰 살결과 꽃처럼 고운 얼굴에 반하여 부사·군수·현감, 내노라 하는 관장, 양반 오입쟁이들이 무수히 만나보려 했지만, 덕행과 정절이 드높아 누구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군자라 함부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불러오기 어려울 것이니, 도련님 그만두십시오.”⁷⁰⁾

69) 최용 외, <문학 교과서 下>, 청문각, 2004, 122쪽.

70) 조현설, <사랑 사랑 내사랑아>, 나라말, 2002, 65쪽.

다른 교과서에서도 지문이 원문을 실어, 지문 해독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음 교과서는 (주)지학사에서 나온 문학 교과서이다.

㉔ “한양성 서방님을 칠년 대한(七年大旱) 가문 날에 갈민대우(渴民待雨) 기다린들 날과 같이 자진하던가. 심근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네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옷 봉장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산세저(韓山細紵) 바꾸어서 물색 곱게 도포 짓고, 백방수주(白放水紬) 진 치마를 되는데로 팔아다가 관망(冠網). 신발 사 드리고, 절병 천은(天銀) 비녀, 밀화장도(蜜花粧刀), 옥지환(玉指環)이 함 속에 들었으니, 그것도 팔아다가 한삼(汗衫) 고의 불초참게 하여 주오. 금명간 죽을 년이 세간 두어 무엇 할까. 용장, 봉장, 받달이를 되는데로 팔아다가 별찬(別饌)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말으시고 날 본 듯이 섬기소서.”⁷¹⁾

이것을 쉽게 풀어 쓴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 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어휘들이 쉬운 어휘로 풀어 써져있어 작품을 감상하는데 용이하다.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 가문에 비 기다리듯 기다린들 나와 같이 기다렸으랴. 심은 나무가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 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해 주오. 나 입던 비단 장옷 봉황 장롱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산의 가는 모시로 바꾸어서 물색 곱게 서방님 도포짓고, 흰 비단 긴 치마를 되는데로 팔아다가 신발 · 갓 · 망건 사드리고, 은 비녀 · 밀화장도 · 옥가락지 함 속에 들었으니 그것도 팔아다가 속저고리 · 속바지 허술치 않게 하여 주오. 머지 않아 죽을 년이 세간 두어 무엇할까? 용 장롱, 봉황

71)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하(下)>, (주)지학사, 2004, 25쪽.

장롱 빼달이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특별히 상을 차려 좋은 진지 대접해 주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마시고 날 본 듯 서방님을 잘 섬기소서.”⁷²⁾

번역을 하다보면 내용이 의역되거나 빠진 부분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번역본의 제시는 학습자가 작품에 접근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전체에 번역본을 제시하는 것이 무리라면, 학습활동에서나 본문 뒤에 보충자료로 실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현행 교과서의 경우는 교사가 따로 번역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작품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학습자가 번역본을 바탕으로 장면의 충분한 이해를 한 후, 학습활동을 해결해 나간다면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새로운 지문의 활용

문학 교과서는 보통 <춘향전>에서 주가 되는 사건 중심으로 본문을 싣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실린 것은 문학적,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춘향전> 스토리에 익숙해진 학습자들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활동 부분에서라도 비교적 새로운 부분을 발췌하여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자료나 매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천재 출판사의 문학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문학 교과서의 학습 목표는 모두, 문학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를 보는

72) 조현설, 위의 책, 183쪽.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춘향전>의 새로운 부분을 제시하여 그 시대 문화를 알아보게 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 향단이 “예”, 하는 대답과 함께 술상을 들여오는데 차림새가 정결하다. 큰 양푼에 소갈비찜, 작은 양푼에 돼지고기찜, 펄펄 뛰는 송어짐, 포드득 나는 메추리탕에 동래 울산의 큰 전복을 대모장도 드는 칼로 맹상군의 눈썹처럼 어긋어긋 오려 놓고, 염통 산적 양 볶기와 갹갹 우는 봄괭의 다리 적벽 대접에 담아 놓고, 분원 그릇에는 냉면조차 비벼 놓고, 생밤 삶은 밤에 잣송이며 호두, 대추, 석류, 유자, 곱감, 앵두, 탕그릇 같은 푸른 배를 가지런히 괴어 놓았다.

안주가 이러하니 이제 술병치레를 보자. 티 없는 백옥병과 푸른 바다의 산호병, 금이 나는 우물에 지는 오동잎 오동병과 목이 긴 황생병, 목이 짧은 자라병, 당초 무늬 그려진 병, 금물을 칠한 병, 소상강 동정호의 죽절병, 그 가운데 은주전자, 붉은 구리주전자, 금주전자를 차례로 잘 갖추어 놓았다. 술 이름이 있을 것인데 속세에 귀양 온 이태백의 포도주, 장생불사 안기생의 자하주, 산림처사들의 송엽주, 과하주·방문주·천일주·백일주·금로주, 팔팔 뛰는 화주, 약주, 그 가운데 향기로운 연잎주 골라내어 은주전자에 가득 부어 청동 화로 참숯불에 찬물 남비가 끓는 가운데 은주전자 살살 돌려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데워내어 금잔 옥잔 앵무잔을 그 가운데 띄웠으니, 옥경에 피는 연꽃 태을선녀 연잎배 띄우듯, 정일품 영의정 머리 위에 파초잎 모양의 큰 부채 띄우듯 두동실 띄워 놓았다.⁷³⁾

이 지문은 이도령이 춘향과 첫날밤을 보내는 날, 향단이가 들고 온 술상이다. 양반을 사위로 맞이하는 월매의 기쁜 마음이 화려한 음식 속에 녹아 있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당대의 화려한 상차림을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당시 음식을 이르는 말들이나, 전통술의 종류 또한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또 이런 나열을 통한 부분의 독자성을 인지하고 이것이 판소리에서 영

73) 조현설, 위의 책, 65쪽.

향을 받은 것임을 학습할 수 있다.

㉠ 이 때 신관 사또, 출행 날을 급히 받아 부임지로 내려올 때 행렬이 대단하다. 구름 같은 가마에 사령들은 좌우로 떡하니 늘어서고, 좌우편을 부축하는 종들은 색깔 진한 모시 제복에 흰모시 전대 고리를 엇비슷이 눌러 매고 대모관자에 통영 갓을 이마에 눌러 숙여 쓰고 의장 줄을 걸쳐 잡고,

“에라 물러섰거라. 나섰거라.”

경계가 지엄하고 좌우 하인은 긴 말고삐 잡기에 힘을 쓴다. 통인 한 쌍이 갓받거지 쓰고 행차 뒤를 따르고, 수배·감상·공방이며 사또맞이 이방은 쌍꺼풀진 눈시울에 주름살이 의젓하다. 종 한 쌍, 사령 한 쌍, 양산 든 종은 앞에서 모시며 큰 길가에 갈라섰다. 전주에 이르러 태조 임금 영정 모신 경기 전 객사에 부임을 아뢰고, 영문에 잠깐 들렀다 좁은목 썩 내달아 만마관 노구바위 넘어 임실을 열른 지나 오수 들러 점심 먹고 그날로 도임했다. 남원 오리 밖 오리정 들어갈 때, 감영의 장교가 육방 하인 거느리고 길 치우고 들어올 때, 청도 깃발 한 쌍, 홍문 깃발 한 쌍, 남동쪽 남서쪽에는 주작 깃발 한 쌍, 동남쪽 서남쪽에는 청룡 깃발 한 쌍, 북동쪽, 북서쪽에는 현무 깃발 한 쌍, 등사 깃발 한 쌍, 순시 깃발 한 쌍, 영기 한 쌍, 집사 한 쌍, 기패관 한 쌍, 군노 열두 쌍, 좌우가 요란했다. 행군 취타 풍악 소리 성 동쪽에 진동하고 삼현육각 풍악 소리와 말부리는 소리 멀리까지 낭자하다. 광한루에 자리 잡아 옷을 갈아입고 부임 의식 행하려고 가마 타고 객사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지나가니 위엄 있게 보이려고 작은 눈을 부라렸다.⁷⁴⁾

두 번째 제시된 지문은 변사또가 남원으로 내려올 때의 노정기(路程記) 행렬을 묘사한 부분이다. 학습자는 변사또를 자세히 묘사한 부분에서 그의 인물됨을 겉모습으로 표현하려 노력한 선인들의 재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행렬을 자세히 묘사하여 한 고을의 수령이 부임할 때 어떤 의식이 있었는

74) 조현설, 위의 책, 114-115쪽.

지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노정기(路程記)는 <춘향전>에서는 두 번 나타나는데, 하나는 위의 변사또가 부임해오는 부분에서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이몽룡이 남원을 내려오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이몽룡의 노정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㉔ 한림이 경건히 절을 하고 하직하여 집에 돌아와서 사당에 절을 하고 부모님께 하직하고, 비장, 서리며 수하들을 먼저 보내고 길 떠날 차비를 차린다. 테 없는 현 파림, 끈 떨어진 현 망건에 박조각으로 관자 삼고, 물렛줄로 당끈 매어 초라하게 눌러쓰고, 다 떨어진 베도포를 칠 푼짜리 무명줄로 가슴 한복판 졸라매고, 현 짚신에 발 싸매고, 버선목 주머니와 곱돌 담뱃대 제법이구나. 너덜너덜 가는 살부채를 솔방울로 장식하고 휘휘 내두르며 나가는 srj동, 어사 행색 꾸몄구나.

남대문 밖 썩 나서서 칠패, 청파, 배다리, 돌모로, 백사장, 동작강 얼른 건너, 승방뜰, 남태령, 과천읍 얼른 지나, 안술막, 밖술막, 갈뉘, 사근내, 수원, 팔달문 내리 달려, 상류천, 하류천, 중미, 오뉘, 진위, 칠원, 소사, 성환, 비토리, 새술막, 천안, 삼거리, 김제역, 억평원, 활원, 모로원, 광정, 떡전거리, 금강을 얼른 건너, 높은 한길, 무너미, 노성, 평촌역, 은진 닥다리, 황화정, 능기울, 여산이 여기로다. 전라도 들어가는 길목이라.⁷⁵⁾

위와 같은 노정기(路程記)는 ‘작중 인물이 일정한 공간을 이동할 때 그 과정을 진술하면서 아울러 주변의 경계며 관련되는 고사, 인심 등을 서술 나열해 가는 일종의 부분창’으로 규정된다.⁷⁶⁾ 이런 형식은 판소리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광대가 흥미를 돋우기 위해 장면을 늘여 부른 것의 흔적이 소설에 남아있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지명들은 당대 불리던 그대로의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 지문을 제시하고, 지명에 따라 지도를 만들어 보거나,

75) 성현경, <옛그림과 함께 읽는 李古本 춘향전>, 2001, 119-121쪽.

76) 천이두, <춘향가의 ‘몽중가’ 소고> 《판소리 연구 8》, 판소리학회 7-8면

지금의 위치와 비교해보는 학습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색다른 학습이 될 수 있다. 또,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정기를 만들어 보는 등의 창작학습도 가능하다.

교사는 이렇게 학습자에게 번역본을 원문과 나란히 제시하여 학습자가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원문과 번역본을 같이 제시하면서, 원문에서 리듬감, 운율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은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지문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끊임 없이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작품 자체에 흥미를 갖기 힘들다. 그러므로 평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장면들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돋우고, 같은 고전 작품을 얼마나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배우는 것이다.

<예시 1>

㉠ “ 내가 춘향을 첫 아내처럼 여길 테니 부모 모신 처지라고 염려하지 말고 장가 들기 전이라고 염려하지 마시오. 대장부가 한번 먹은 마음인데 박대하겠는가? 허락만 하여 주시오.” 그제서야 월매의 얼굴에 웃음이 돈다. 지난 밤 꿈을 생각하고 이것이 천생연분인줄 짐작했다. 시원하게 허락하며 향단을 부른다.

“ 봉이 나니 황이 나고, 장군 나니 용마 나고, 남원에 춘향이 나니 이화춘풍이 꽃답구나. 향단아, 술상을 들여오너라.”

향단이 “예”, 하는 대답과 함께 술상을 들여오는데 차림새가 정결하다. 큰 양푼에 소갈비찜, 작은 양푼에 돼지고기찜, 펄펄 뛰는 송어짐, 포드득 나

는 메추리탕에 동래 울산의 큰 전복을 대모장도 드는 칼로 맹상군의 눈썹처럼 어긋어긋 오려놓고, 염통 산적 양 볶기와 경경 우는 붐괭의 다리 적벽 대접에 담아 놓고, 분원 그릇에는 냉면조차 비벼 놓고, 생밤 삶은 밤에 잣송이며 호두, 대추, 석류, 유자, 꽃감, 앵두, 탕그릇 같은 푸른 배를 가지런히 괴어 놓았다.

안주가 이러하니 이제 술병치레를 보자. 티 없는 백옥병과 푸른 바다의 산호병, 금이 나는 우물에 지는 오동잎 오동병과 목이 긴 황생병, 목이 짧은 자라병, 당초 무늬 그려진 병, 금물을 칠한 병, 소상강 동정호의 죽절병, 그 가운데 은주전자, 붉은 구리주전자, 금주전자를 차례로 잘 갖추어 놓았다⁷⁷⁾

· 다음 장면을 보고 부분의 독자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찾아보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독자성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 향단이 술상을 차려오는 부분부터 부분의 독자성이 실현되고 있다. 이 부분은 술상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판소리로 연행될 때 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특정부분을 굉장히 늘여서 표현한 것이, 소설로 정착되면서 그 흔적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 한림이 경건히 절을 하고 하직하여 집에 돌아와서 사당에 절을 하고 부모님께 하직하고, 비장, 서리며 수하들을 먼저 보내고 길 떠날 차비를 차린다. 테 없는 헌 파립, 끈 떨어진 헌 망건에 박조각으로 관자 삼고, 물렛줄로 당끈 매어 초라하게 눌러쓰고, 다 떨어진 베도포를 칠 푼짜리 무명줄로 가슴 한복판 즐라매고, 헌 짚신에 발 싸매고, 버선목 주머니와 곱

돌 담뱃대 제법이구나. 너덜너덜 가는 살부채를 솔방울로 장식하고 휘휘 내두르며 나가는 srj동, 어사 행색 꾸렸구나.

남대문 밖 썩 나서서 칠패, 청파, 배다리, 돌모로, 백사장, 동작강 얼른 건너, 승방뜰, 남태령, 과천읍 얼른 지나, 안술막, 밖술막, 갈외, 사근내, 수원, 팔달문 내리 달려, 상류천, 하류천, 중미, 오외, 진위, 칠원, 소사, 성환, 비토리, 새술막, 천안, 삼거리, 김제역, 억평원, 활원, 모로원, 광정, 떡전거리, 금강을 얼른 건너, 높은 한길, 무너미, 노성, 평촌역, 은진 닥다리, 황화정, 능기울, 여산이 여기로다. 전라도 들어가는 길목이라.⁷⁸⁾

· 다음 노정기를 살펴보고 다른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이러한 노정기가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어느 작품의 어느 부분인지 찾아서 발표해보자.

→ 노정기(路程記)는 판소리계 소설에서 흔히 나타난다, 작중 인물이 일정한 공간을 이동할 때 그 과정을 진술하면서 아울러 주변의 경개며 관련되는 고사, 인심 등을 서술 나열해 가는 일종의 부분장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궁가>를 살펴보면, 총 3번의 노정기가 나옴을 알 수 있다, 3번의 노정기는 '고고천변(皐皐天邊)', '범피중류(泛彼中流)', '혼령상봉(魂靈相逢)' 이 그것이다.

(2) 보조 인물 확대하기

춘향, 이몽룡, 변학도가 작품의 기본축을 이루는 인물들이라면 월매와 방

77) 조현설, 위의 책, 64-65쪽

78) 성현경, 위의 책, 119-121쪽.

자는 그에 부수되어 작품을 더욱 풍부하고 흥미 있게 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봉건사회 신분구성의 최하위층에 해당하는 천민들이란 점에서 당대 민중의 한 성원으로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춘향으로 전형되는 일반적인 민중의 성격과는 구별된다.

그 중에서 특히 월매는 여러모로 춘향과는 대조적 인물이다.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이 현실의 신분관계에 반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적 요구의 발로였음에 반해, 월매는 그러한 사랑보다는 사랑을 통해 획득되는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한 주어진 현실, 주어진 신분 질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단지 일신상의 이익이나 취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작품은 이 양자의 흥미로운 대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현실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월매가 민중의식의 한 단면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방자는 쾌활하고 악의가 없으며 충직하나, 한편으로 양반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 방자는 월매와는 달리 양반적 지배질서를 회롱하는 역할을 부여받기도 하는데⁷⁹⁾, 그러나 자신의 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방자의 의뭉하고 교활한 성격은 작품 내에 등장한 농민들의 소박하고 단순한 성격과 좋은 대조가 된다.

이렇게 이미 월매와, 방자는 작품에서 개성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후대로 갈수록 이본들이 생기면서 보조인물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월매의 경우 이본들이 생기면서 후대본으로 갈수록 원텍스트보다 이본에서 그 역할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방자와 향단의 경우에도 원텍스트와는 상관없이 변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장르로 재창작되면서, 방자와 향단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실제 원전에서는 방자와 향단 사이에

79) 이것은 <배비장전>에서 배비장을 공격하는 방자, <적벽가>에서 조조를 공격하는 정육, 탈춤에서 양반(샌님)을 공격하는 말뚝이 등과 같은 유형의 인물이다.

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채 작품이 끝나는데, 장르교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더욱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방자와 향단이도 결합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다양한 장르를 통해 <춘향전>을 접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원텍스트보다, 방자와 향단이 결합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므로 이것 자체가 비판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사는 원텍스트를 바르게 제시하고, 월매, 방자, 향단 등의 보조 인물이 확대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사실들을 같이 보여주어, 그 차이를 구분 짓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도 이런 보조 인물들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시켜 보는 재창작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예시 1> 보조인물로 역할극 만들기

- ① 월매의 입장에서 옥중 춘향에게 편지 쓰기

- ② 방자와 향단이 인터뷰하기.

-각각 주인인 성춘향과 이몽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변형된 작품의 경우, 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예시 1>과 같이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조인물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작품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다각도로 접근해 봄으로써 학습자는, 그동안 <춘향전>이라는 작품이 계속 전승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장르 간의 교섭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이런 주변 인물들의 성격을 다시 재조명하여 봄으로써 고전소설에 나타난 개성적 인물에 대해 이해하고, 그 속에 깔려 있는 당대의 민중의식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Ⅲ. 소규모 협동학습을 활용한 학습방안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대안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특히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은 소규모 협동학습이다. 소규모 협동학습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소규모 협동학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직접 소규모 협동학습을 이용한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겠다.

1. 소규모 협동학습

‘소규모 학습’이란 2~6명 내외의 학습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⁸⁰⁾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의 방법으로 이런 다양한 소규모 협동학습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러한 소규모 협동학습을 이용한 수업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규모 협동학습의 특성

수업의 과정에서 집단 내에서 개인들이 작용하는 데는 흔히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모두 똑같은 과제를 부여받고, 집단 내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전통적인 집단학습이다. 둘째는 집단 내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과제를 갖고 작업을 한 다음 나중에 서로 그 과정과

80) 교육부,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001, 71쪽.

결과를 합쳐서 집단 전체에 하나의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셋째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하나의 과제를 갖고 모든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고, 결과물도 함께 만들어 낸다. 소집단 협동학습은 위의 세 가지 중, 대체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의 집단 내 개인작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집단 협동학습은 근본적으로는 학습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깔고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집단학습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이 강조되지 않는다. 집단에 대한 개별적인 책무성도 강조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집단학습에서는 대체로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경우가 많았고,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몫만을 하면 그만이지 집단의 다른 구성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각기 자기의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집단조직 내에서 사회적인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격려도, 고무도 없다. 집단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전통적인 집단학습에 비하여, 소집단 협동학습에서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상당히 이질적이며, 집단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각기 자신의 책무수행의식을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강하게 느낀다. 즉,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을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성원 상호간에 책임을 나누고, 격려와 애정을 느낀다. 자신의 과업만이 아니라 집단의 과업을 중시한다. 따라서 집단과정이 필수적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이 나타나며 학습자들은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몸으로 터득한다.⁸¹⁾

81) 이성호, 교육방법론, 학지사, 2003, 252쪽.

2) 소집단 협동학습의 모형

이제까지 개발된 소집단 학습 모형에서 대표적인 여섯 가지⁸²⁾를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춘향전> 교육에서 쓰일 협동학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① 집단 조사 모형

집단조사 모형에서는 우선 먼저 연구 주제를 정한 다음, 학습자를 연구소 집단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그리고 각 집단별로 학습 계획, 즉 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난 다음, 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듯, 연구를 계획에 따라 실천에 옮겨 나간다. 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고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최종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전시, 풍자극, 발표회 등을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집단조사 모형의 대표적인 예로 H. Thelen(1960)이 개발한 집단조사 모형이 있다.

② 또래(동료) 교수 팀워크 모형

이 모형에서는 교사가 학습 과제를 우선 전체 모든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준다. 그 다음 팀을 짠다. 그러면 각 팀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또래 교사가 되어 그 팀의 구성원들을 가르친다.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 교사는 시험을 치르게 하여, 개개인의 성취 정도를 확인한다. 개개인의 성취가 높게 나타난 팀을 찾아내 그 팀 전체를 보상한다.

82) 모형에 대한 기존 연구 중, 이성호 <교육방법론> 학지사, 2003, 252~269쪽, 윤광보 외 <교육방법과 교육공학의 이해>, 양서원, 2003, 257~259쪽, 한방교, 윤근길 <교육방법론>, 태영출판사, 2005년, 208~219쪽의 도움을 받아 재정리하였다.

③ 토너먼트 게임

이는 Johns Hopkins 대학에서 D.L DeVries 등(1978)에 의해 개발된 협동 학습 모형으로, 정답이 분명한 교과 내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앞의 ‘또래 교수 팀워크 모형’과 같은 유형의 모형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것은 시험을 치르는 대신에 토너먼트 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④ 직소(Jigsaw) I

교사는 개개 학습자에게 전체 학습자료 중 일부분을 떼어 나누어 준다. 그러나 요구되는 학습은 모든 자료를 전부 학습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다른 부분을 떼어 받은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협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모형이다.

⑤ 직소(Jigsaw) II

이는 앞의 직소 I 에서처럼 학습자에게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전체 학습자료 중 일부분을 나누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각기 제일 깊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를 배정해 준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각자 공부한 다음, 자기 팀에 돌아와서 그림 짜맞추기 퍼즐(jigsaw puzzle)을 하듯 팀구성원들과 함께 짜맞추도록 한다. 결국 구성원들끼리 자신의 정보를 함께 나누지 않으면 퍼즐을 결코 완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얼마 후 교수자는 시험을 치루어, 개인별, 팀별 성취도를 따져보는 모형이다. 이 모형도 소집단 협동학습으로는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모형이다.

⑥ 코프코프(Co-op Co-op)

이 모형에서는 전체 학습자료 중 한 부분을 하나의 팀에게 맡긴다. 그러면 각 팀에서는 다시금 구성원들에게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맡긴다. 이 때 각 학습자는 되도록 자신이 제일 깊이 알고 싶은 하위주제를 택하여 맡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각기 그 하위주제를 공부하고 준비한다. 그 다음엔 팀으로 돌아와 팀 구성원들과 함께, 전체 학급에 보고할 것을 협동적으로 준비한다. 그리고 다른 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교수자는 개개 학습자의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위의 활동 중, 직소수업이 개별평가에는 더 유용하지만, 다른 활동에 비해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3차시로 한정된 <춘향전> 교육에서는 시행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춘향전> 교육을 위해서는 ‘집단조사 모형’이나 ‘코프코프 모형’을 활용한 협동학습을 하고자 한다. 즉, 모든 팀원이 자신의 모듈에주어진과제를 함께 토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집단조사 모형’만 한다면 모듈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는 학습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에 ‘코프코프 모형’을 함께 제시하면, 각각 배당된 하위문제가 있으므로, 다함께 참여가능하다.

2. 매체 활용을 한 소규모 협동학습

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매체와 연계하는 학습을 중요시한다. 이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매체 활용이 어렵다고는 하나, 협동학습을 잘 이용한다면 짧은 수업시간에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토의수업은 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업시간이 여유롭다면 직소(Jigsaw) 수업을 하는 것이 좋으나, 현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서는 3시간으로 수업 차시가 정해져 있으므로, 직소(Jigsaw) 수업은 피하고 나머지 협동학습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토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1개 모듈에 4-6명의 인원을 편성해서 모듈별 토의를 실시한다. 1개 학급에 모듈의 수를 6-7개로 정하고 각 모듈별로 고유의 명칭을 짓게 한다.

둘째, 모듈 자체에서 구성원들에게 그 역할을 발표자, 토의 내용 정리하는 자, 자료 준비 및 제작자 등으로 분담케 한다.

셋째, 모듈별 토의의 주제를 1-2개 주어 주제를 발표하게 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이때 결과 발표의 매체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넷째, 토의의 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업 전에 토의 주제를 공지한다.

다섯째, 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활동의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이러한 토의 과정을 통해 판소리계 소설 수업의 효과를 기한다.

1)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과 관련한 토의의 주제

소규모 협동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모듈이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의한 후 발표해야 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춘향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주제를 뽑아 보았다. 이를 참고로 하

여 각 모듬의 토의주제를 정할 수 있다.

◇ 판소리계 소설의 언어적 표현

학생들이 교과서에 실린 판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 표현의 묘미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게 하여 어휘와 문체적 특징을 알도록 한다.

◇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학생들이 인물의 발화와 행동 그리고 인물간의 상호관계, 갈등의 양상 등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되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 관련한 시대적 현실을 고려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민중의 삶의 현실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 주제의 다양성 파악하기

<춘향전> 텍스트가 형상화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고찰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춘향의 애정문제, 신분문제, 정절문제, 춘향과 이도령과의 만남과 결연의 의미, 춘향의 형장과 옥중 시련, 변학도의 목민관으로서 행태, 암행어사의 출두의 기능 등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시대적 현실에서 민중의 삶과 관련하여 주제를 고찰하도록 한다.

◇ 판소리계 소설에 반영된 조선후기 민중의 역사적 배경 파악하기

<춘향전>의 문학적 체험을 통해 판소리계 소설에 반영된 조선 후기 역사적 배경과 민중적 삶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조적 계승의 태도를 갖도록 지도한다.

2) 판소리 공연 감상하기

문학 교육에서 주로 행해지는 판소리의 문학적인 측면만이 아닌 음악적인 측면과 연극적인 측면 등 판소리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교

사는 학생들에게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판소리의 공연의 모습을 보거나, CD를 통해 판소리 연창을 감상하게 한다. 이때 학생들은 판소리를 즐기는 청중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듣도록 한다. 아울러 판소리의 장단 및 아니리 부분과 창 부분을 염두해 두고 감상하도록 한다.

3) 내면화 단계

내면화 단계는 7차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단계로, 학습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미 습득한 지식을 자기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감상과 평문 쓰기

문학교육이 인간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단순히 지식의 교육이 아닌 ‘정서를 포함하는 가치의 문제’를 교육이라는 점에서 이 내면화 단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⁸³⁾ 작품을 통해서 학습자의 내면을 형성하고, 인식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 방법이 되는데,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춘향전>에 대한 감상이나 평문을 적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춘향전>을 공부하면서 새로이 알게 된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 조선 후기 사회 현실에 대한 비평 등을 적어오게 한다. 그밖에 옥중에서 춘향이 이도령에게 보내는 가상의 편지 쓰기, 변학도와 같은 탐관오리에 대한 징계 상소문 쓰기, 변학도의 학정에 대한 신문기사문 쓰기 등이 내면화 단계에서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다른 판소리 작품 감상하기

내면화 단계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텍스트 상호성의 확대인데, 이는 수업에서 선택한 제재를 교육한 이후에 구조적으로 주제적으로 연관되

83)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2001, 296쪽.

는 많은 작품을 감상하는 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춘향전> 이외의 다른 판소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3. <춘향전>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에서는 <춘향전>을 모두 3차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춘향전>을 3차시로 정하고, ‘국어’ 교과서를 기준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단 본고에서 주장한 것이 3차시에 해당하는 ‘재창작하기’ 부분이므로 이론 중심의 1차시와 2차시는 생략하고, 3차시를 기준으로 제시하겠다. 또 문학 교과서의 경우에는 협동학습을 토대로 수업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제시하여 그 시간에 진행된 수업내용을 학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 국어 교과서에서 수업 전개

국어교과서 수업 전개 과정은 II장에서 제시한 ‘재창작하기’와 ‘뒤집어보기’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3차시의 교육내용 중 마지막 차시를 수업지도안으로 제시하여 방법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표 7> 3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 대단원 | 7. 전통과 창조 | 소 단 원 | (1)춘향 전 | 차 시 | 3/3 | 장소 | |
|----------|-----------|---|---------|-----|-----|----|--|
| 수준별 학습목표 | 공통과정 | 1.<춘향전>에 형상화된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춘향전>의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 | | | |
| | 보충과정 | (공통 과정과 같음) | | | | | |

| | | | | | | | |
|------|------|---------------------------------------|---|--|--------|----------|----------------|
| | 심화과정 | 3.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 | | | | |
| 학습자료 | 학생 | 교과서, 국어사전, 과제물 | | 학습형태 | 모듬토의학습 | | |
| | 교사 | 교과서, 국어사전, 판소리 CD 자료 | | | | | |
| 과정 | 학습단계 | 교수· 학습 활동 | | 시간 | 학습형태 | 자료, 유의점 | |
| | | 교사 | 학생 | | | | |
| 공통과정 | 도입 | <p><춘향전>을 통해 형성된 배경지식을 확인하기</p> | <p>▶ 전 차시에서 형성된 배경지식 정리하기 (<춘향가>에서 <춘향전>으로 변형되어 온 과정을 이해, 서사구조, 배경설화 등을 알아본다.)</p> | <p>▷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며 정리한다.</p> | 5분 | 강의식 | PPT 자료 활용하여 정리 |
| | | <p>본시학습 목표확인</p> | <p>▶ 학습목표 제시</p> | <p>▷ 관서된 학습목표를 확인한다.</p> | | | |
| 공통과정 | 전개 | <p><춘향전>의 종합적인 접근</p> | <p>▶ 1,2,3 모듬은 작품의 한 장면을 재창작하도록 한다.(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p> <p>▶ 4,5,6 모듬은 성춘향, 이몽룡, 변사또에 대해 기존의 관점과 다르게 비판하거나 옹호해 보는 활동을 한다.(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p> | <p>▷ 모듬별로 토의하여 정리한다.</p> <p>▷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를 준비한다(역할극, 등장인물 인터뷰하기 등) 단, 설명식으로 발표할 경우 OHP에 그림을 그려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p> | 15분 | 토의식 협동학습 | PPT 자료 활용하여 정리 |
| | | | | | 20분 | 발표 | OHP |

| | | | | | | |
|----|------------------------|---|--|-----|-----|-------------|
| 심화 | | <p>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준다.)</p> <p>▶ 발표 3분전에 시간을 알려 주어 정리하도록 한다.</p> <p>▶ 학습자가 원 작품과 비교, 재창작된 부분, 작품의 의의와 한계점, 인물을 새롭게 보는 방식과 그 기준 등을 기준으로 다른 모듬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p> | <p>▷ 다른 모듬의 발표를 원 작품과 비교, 재창작된 부분, 작품의 의의와 한계점, 인물을 새롭게 보는 방식과 그 기준 등의 기준에서 정리하고 평가한다.</p> | | | |
| | 공통과정 | <p>▶ 각 모듬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어느 부분이 재창작되었는지 정리하도록 한다.</p> | <p>▷ 경청하여 정리한다.</p> | | | |
|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대한 계기 교육 | <p>▶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창조적 계승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정리한다.</p> | <p>▷ 경청하여 정리한다.</p> | 10분 | 강의식 | PPT 자료 활용하여 |

| | | | | | | |
|----|----|---|---|--------|-------------------|-------------------|
| 정리 | | ▶<춘향전>이 그동안 다양한 장르로 변용, 전승되어 온 사례를 제시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대한 태도 함양 지도 | ▷설명을 듣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창조적 계승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갖는다. | | 문답식 | 정리 활동지 |
| | 정리 | ▶본시학습 내용 정리 ▶형성평가 실시 ▶차시 예고 ▶과제 제시 · 다른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 알아본다. | ▷확인 정리한다. ▷문제 풀이를 한다. ▷인지한다. ▷과제 내용을 기록한다. | 5 분 | 강의식 문답식 강의식 | PPT 자료, 활동지 |

이 수업안은 국어교과서의 3차시 내용으로 전시학습에서 형성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것을 배경지식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유도한 것이다. 즉 모둠별로 재창작하는 활동을 유도하거나 등장인물을 새로운 기준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주 활동으로 하였다. 학습자는 모둠별로 <춘향전> 재창작에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활동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단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시간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6개의 모둠을 두 집단으로 다시 나누어 두 가지 활동을 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재창작하기의 경우, 교사는 결론 다시 쓰거나 기사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재창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발표하는 동안에도 다른 모둠의 발

표를 요약, 정리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수업에 학습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는, 그동안 <춘향전> 모티프가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작품들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활동이 학습목표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이 때 제시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언급한 시를 중심으로 하는데, 시는 짧은 시간에 전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르보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데 유용하다. 대신 다른 장르에서도 활발히 변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표 4>과 같이 자료를 제시하거나, 교사가 그 중 한, 두 작품을 골라 줄거리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8> 국어과 3차시 형성평가

| 형성평가 |
|---|
| <p>1.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p> <p>① 유교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있다.</p> <p>② 산문중심의 문어체로 되어 있다.</p> <p>③ 풍자와 골계미가 뛰어나다.</p> <p>④ 영웅의 일생이라는 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p> <p>⑤ 전기적(傳奇的)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p> <p>2. 이 작품의 갈등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p> <p>① 탐관오리를 응징하려는 이몽룡과 권력형 부조리표상인 변학도 사이의 갈등</p> <p>② 개방적 의식을 지닌 춘향과 전통사회의 가족규범을 중시하는 이몽룡과의 갈등</p> <p>③ 자유, 평등, 해방이라는 당위적 규범과 속박, 차등, 예속이라는 현실적 규범과의 갈등</p> |

④ 낭군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춘향과 권력을 이용하여 미색을 탐하는 변학도와와의 갈등

⑤ 퇴기의 딸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고자하는 춘향과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 규범과의 갈등

3. 다음은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항거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광: 신관 사또가 불의하고 부정한 양반 관료이기 때문이다.

② 인경: 이 도령이 장차 귀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야.

③ 승환: 신관 사또는 중년 남성으로서 인간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야.

④ 상희: 신관 사또가 이도령을 위한 춘향의 일부종사 수절을 방해했기 때문이야.

⑤ 진수: 월매가 은근히 신관 사또에게 수청을 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눈치 챘기 때문이야.

4. 판소리에 나타난 민중의 현실인식과 관련하여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말해보자.

3차시에서는 <춘향전>재창작하기와 <춘향전> 뒤집어보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두 활동 모두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학습방법이었다. 재창작을 하면서 학습자들은 등장인물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각 인물이 작품에 갖는 의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춘향전>의 모티프를 활용한 다른 작품과도 비교해 보면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 문학사적 의의도 파악할 수 있었다. 위에 제시한 형성평가는 이런 교육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였다.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춘향전>에 반영된 사상을 알 수 있는 문제였고, 2번과 3번 문제는 재창작하기와 뒤집어보기를 통해 학습된 등장인물 간의 갈등구조와 역할을 묻는 문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여러 활동을 통해 깨달은 문학과 사회의 관계, 문학사적 의의를 각자 서술하는 내용이다. 이런 형성평가를 이용하면 모듈별 수업을 하더라도 개별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의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2) 문학 교과서에서 수업 전개

문학 교과서의 수업 전개는 지도안 대신 몇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문학교과서에서 <춘향전>이 실린 부분은 단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국어교과서의 경우처럼 하나의 단원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단원을 대입했을 때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면에서 수업전개를 제시하겠다.

(1) 1단계: 학습 목표 인식

1단계는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자신이 탐구하고 학습할 대상과 목표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습자에게서 흥미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 공통과정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춘향전>의 전체 내용 등을 정리해 오도록 과제를 제시하여 수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학습자의 수

준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① 학습목표 설정 및 제시: 학습목표는 수업의 도달점이자 지향점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그리고 적절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협동 탐구 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은 궁극적으로 학습목표를 성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표 9>

<예시>

단원의 학습목표

1. 중세 후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서와 세계관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안다.
2. 교과서 이외의 장면 중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 주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판소리계 특징을 이해한다.
3. 보조인물을 찾아 그 역할을 생각해보고, 작품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한다.

② 학습동기 유발

- 영화 <춘향전>에서 춘향과 몽룡의 이별 장면 보여주기

- 판소리로 '사랑가' 대목 들려주기

[활동] <춘향전>의 다른 장면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해 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기부여를 위한 활동이므로 강압적이거나 정답을 말해야 하는 분위기가 아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르상의 특징이나 표현상의 특징 등에 대한 지식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양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
| 5 | <춘향전>의 전체구조와 배경설화를 연결해보자. |
|---|---------------------------|

◎ 수업용 PPT 자료

<ppt 1> 춘향전의 시대적 배경

| |
|---|
| <p>1. <u>춘향전의 시대적 배경</u></p> <p>대체로 [조선후기 숙종조 (18세기 초엽)] 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시기는 서민들의 의식과 자각이 드러나 있다. 봉건주의적 질서 체계가 무너지고 근대의식이 발흥하는 시기이다.</p> |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사회는 전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서민들의 지배층에 대한 불신과 자기 각성,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부의 축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평민들도 자신의 부를 기반으로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교육과 문학 향유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춘향이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시대 배경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춘향의 꿈이 서민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ppt1> 과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ppt 2> 춘향전의 작가

| |
|---|
| <p>2. <u>춘향전의 작가</u></p> <p>오랜 세월이 걸쳐 내려오는 동안 한 사람의 지은이가 아닌 여러 사람이 이야기의 형성에 참여한 [적층문학]이다.</p> |
|---|

<ppt3>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정과 <춘향전>의 형성과정

| 3.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과정과 <춘향전>의 형성과정 | | | | | | | | |
|--|---|-----|---|------|---|--------------|---|-----------------|
| 설화 | | 판소리 | | 고전소설 | | 신소설 | | 현대소설 |
| 열녀설화 신원설화 박색설화 관탈민녀설화 암행어사설화 | → | 춘향가 | → | 춘향전 | → | 옥중화 (이해조) | → | 일설 춘향전 (이광수) |

교사는 <ppt2>와 <ppt3>을 제시하면서 적층문학이란 여러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작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른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을 말해준다.

<ppt4> 춘향전의 의의

| 4. 춘향전의 의의 |
|--|
| ①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작이다. |
| ②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민 소설로서 당시의 풍속을 잘 그리고 있다. |
| ③ 당대 사회에 싹트고 있었던 근대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

<ppt5> 춘향전의 전체 구조와 배경설화

| 5. 춘향전의 전체 구조와 배경설화 | |
|---------------------------|----------|
| 이도령과 성춘향의 결합과 이별 | [애정]설화 |
| ↓ | |
| 탐관오리 변학도의 부임과 춘향에 대한 수청요구 | [관탈민녀]설화 |
| ↓ | |

| | |
|------------------------------|-----------|
| 변학도의 요구에 대한 준향의 거절과 수난 | [열녀] 설화 |
| ↓ | |
| 이 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 출도, 변학도 징벌 | [암행어사] 설화 |
| ↓ | |
| 준향과 이도령의 재결합과 백년해로 | [신원] 설화 |

교사는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설화를 소개하는 것도 좋겠으나 시간에 쫓기게 된다면 목록을 주고 각자 인터넷과 서적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미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3) 3단계: 협동 탐구 활동 준비

① 협동탐구학습을 위한 조편성 및 역할 분담

소집단의 성격으로는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집단으로 형성하는 동질 집단과 성적을 고려하여 고르게 학생을 편성하는 이질 집단이 있다. 본 수업은 이질집단으로 소집단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끼리 같은 조를 이루었을 경우 탐구의 능력이 떨어져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고르게 편성하여 각자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집단 편성시 자율에 맡기면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하게 관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 소집단 구성은 6-7명을 한조로 하고 각자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다.

| | | | | | | |
|----|-----|------|------|------|-----|-----|
| 조원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 역할 | 모듬장 | 탐구자1 | 탐구자2 | 탐구자3 | 정리자 | 발표자 |

② 협동 탐구학습의 방법 및 수업 계획 소개

소집단 편성과 함께 소집단의 역할과 각 조직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수업의 진행에 대해 제시해 주는 단계이다. ppt로 제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③ 협동 탐구 학습 과제 선정

교사는 협동 탐구 활동 전개에 앞서 미리 탐구 과제를 제시하여 각 소집단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사전 자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탐구활동시간에 우왕좌왕하거나 맥없이 무엇을 할지 몰라 당황하지 않는다. 또한 협동탐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목표의 성취를 위해 단원의 학습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4단계: 협동 탐구 활동 전개

① 자료분석, 자료 평가, 자료 정리, 토의 등을 통한 협동 탐구활동 실시

이 단계는 협동 탐구활동을 실시하는 단계로, 개인별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작성하여 다른 모둠원과의 토의와 조율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교사는 이 때 학습자의 상태나 수준에 따라 과제를 탐구하는 요령 및 자료를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 시범적으로 제시해 주어도 된다. 그러나 탐구 결과를 예측하게 하거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실제의 탐구활동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문제지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문제지는 가급적 서술형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표 11> 협동 탐구 학습 활동지

| 협동 탐구 학습 활동지 | |
|---|------|
| ◆ 조 이름: | |
| 과제 제시 | 탐구결과 |
| <p><탐구과제 1> 보조인물 확대하기.</p> <p>① 작품에 나타나는 보조인물은 누구인가? ② 각각의 보조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③ 보조인물과 주요인물은 각각 어떤 관계인가? ④ 보조인물들의 캐릭터가 없다면 작품은 흥미나 묘미는 어떻게 되겠는가? ⑤ 위의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보조인물의 역할은 무엇인가? ※ 보조인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캐릭터를 변형, 창작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역할극을 만들어보자.</p> | |
| <p><탐구과제 2> 교과서 외의 다양한 장면 활용.</p> <p>① 이 모듈에서 정한 장면은 <춘향전>의 구성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가? ② 무슨 내용이 주를 이루는가? ③ 이 장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④ <춘향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⑤ 시대상화를 고려해 볼때 민중의 의식이 얼마나 나타나 있는가? ※ 위의 물음들을 종합하여 장면을 OHP에 그려 설명해보자.</p> | |
| <p><탐구과제 3> 노정기(路程記) 활용하기</p> <p>① 노정기(路程記)란 무엇인가? ② <춘향전>에서 노정기(路程記)는 몇 번 나타나나? ③ 노정기가 첨가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④ 노정기(路程記)가 판소리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이</p> | |

| | |
|--|--|
| <p>라 말할 수 있는가?</p> <p>⑤ 만약 그렇다면, 다른 판소리계 소설의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p> <p>※ 위의 물음들을 종합하여 <춘향전> 노정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림이나 지도를 그려보자.</p> | |
|--|--|

위에 제시한 탐구과제 세 가지는 이론 수업이 끝나는 1차시 정리단계에서 제시한다. 6개의 모듈이 준비됨에 따라 각각의 과제에 두 개의 모듈이 탐구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각 모듈별로 탐구과제의 내용을 나누어 자료를 조사해 오도록 한다. 2차시에서는 각 과제를 맡은 사람이 자료를 찾아 정리하여 모듈원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물음에 대한 토의 및 공동 작업을 하도록 한다. 수업 시간에 이런 협동 탐구 학습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목표와 <춘향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활동지에 담당자를 기록하게 해서 협동학습에 책임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5) 5단계: 협동 탐구활동 결과 발표

① 협동 탐구활동 결과 발표

이 단계는 3차시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협동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토의와 공동작업을 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발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가급적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실 등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②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의

발표 후에 자연스러운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너무 질의응답에 평가 척도를 들이대면 학습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질의응답은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질의응답이 되도록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토의는 수업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질의응답이나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때도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하여 토의의 불씨를 지피도록 해야 한다.

③ 평가

협동학습의 경우 개인이 아닌, 소규모로 모둠을 정해서 활동하여 함께 점수를 받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모둠별 평가를 할 때 다른 모둠의 학습자들이 발표의 내용 등을 보고 협의 하에 평가하도록 한다. 가급적 교사와 같은 평가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교사의 지나친 주관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3> 모둠 평가지

| ※ 다음 각 항목에서 평가 척도에 따라 1-5점으로 평가한다. | | | | | | |
|------------------------------------|---|---|---|---|---|---|
| 분류 | 평가항목 | 5 | 4 | 3 | 2 | 1 |
| 1. 준비도 | 조원들이 각자 맡은 탐구에 잘 참여하여 공동탐구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졌다. | | | | | |
| 2. 조직 | 적절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소집단 활동이 원활하였다. | | | | | |
| 3. 참가 | 조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 | | | |
| 4. 발표내용 | 발표 내용이 수업 목표 및 내용과 잘 부합하였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었다. | | | | | |
| 5. 발표 및 경청자세 | 간결하게 탐구과제를 잘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 | | | |
| | 다른 조의 발표를 진지하게 듣고 토의에 임했다. | | | | | |
| 계 | | | | | | 점 |

<표 14> 모듈별 모듈원 평가지

| ※ 다음 각 항목에서 평가 척도에 따라 1-5점으로 평가한다. | | | | | | |
|------------------------------------|---|---|---|---|---|---|
| 분류 | 평가항목 | 5 | 4 | 3 | 2 | 1 |
| 1. 책임성 |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 | | | | |
| 2. 협동성 | 협동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 | | |
| 3. 발표 및 경청자세 | 조원 간의 토의에서 활발히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 | | | | |
| 계 | | | | | | 점 |

위와 같이 모듈별 평가와 개별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는 다면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다른 모듈의 평가 뿐 아니라 모듈원 상호간의 평가를 하도록 하여 같은 모듈이라도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 무임승차하여 덕을 보았다고 하는 학생이나, 이런 학생 때문에 손해 보았다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6) 6단계: 정리·통합·평가

① 학습 내용 정리 및 형성 평가 실시

이 단계는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로 형성평가를 통해 수업 성취도를 판단하고 아울러 정리해 볼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충과 심화 학습이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3> 형성평가 문제지

| 형 성 평 가 | |
|----------------|--|
| ◆ 제 학년 반 번 성명: | |
| 1. | <춘향전>에 나타나는 보조인물은 누구누구인가? _____ |
| 2. | 그 보조인물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_____ _____ |
| 3. | 노정기(路程記)란 무엇인가? _____ _____ |
| 4. | 판소리계 소설에서 부분의 독자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여라. _____ _____ |

교사는 1, 2번의 문제를 통해 학습자가 보조인물에 대해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자료를 제시하여 보조인물이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언급해 줄 수 있다. 3, 4번의 문제는 부분의 독자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사는 학습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부분의 독자성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다른 고전작품(예를 들어 탈춤이나 판소리)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비문학적인 성격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학교과서는 선택 교육과정인 만큼 국어교과서보다 심도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학습자 스스로가 선택하여 배우는 과목이므로 과목에 대한 열의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규모 협동학습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문학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면서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게 하고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여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전문학 교육은 고전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당대 선인들의 지혜와 가치관 내지 세계관을 배우고, 민족적 정서와 사상을 이어받아 민족 문화의 전통을 오늘날에 새롭게 되살려 나가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중심 제재인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은 교수요목기에서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어교과서나 문학교과서에 빠짐없이 실렸고, TV드라마, 영화, 뮤지컬, 창극, 오페라, 연극, 시, 소설 등 다양한 예술양식으로 재창작되고 있어 한국인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강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 고전소설 작품이다. 그러나 국어교과서나 문학교과서에 실린 <춘향전>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일부만 수록되어 있어 즐거움만 대강 알고 있을 뿐인데 전체를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있으며, <춘향전>의 진정한 문학적 가치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그나마 교과서에 수록된 일부의 내용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어려운 고어나 어구풀이, 또는 단편적인 문학 지식의 나열 등의 내용이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자들은 고전소설 작품에 대한 흥미를 일게 되어 고전 문학 교육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문학 작품의 감상 위주가 아닌 지식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는 지식정보화·세계화 사회로 지구를 하나로 이어주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 현

장에서도 지식 중심의 교육활동이 아닌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 요인들을 수용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온 고전소설 교수-학습지도의 개선 방안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학습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그동안 <춘향전>에 관한 많은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문학 교육 제재로서의 <춘향전>의 교육 방법에 관한 이론 연구 및 실천 방법에 관한 이론 연구 및 실천 방법에 관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춘향전>의 학문적 연구에서의 많은 연구 업적에 비해 문학 교육 대상으로서의 <춘향전>의 학습지도를 위한 교육 이론 및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양과 질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춘향전>이라는 하나의 고전문학 작품을 교육 제재로서 살펴보고 효율적인 수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고전 소설 작품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전>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위해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실린 <춘향전>의 수록 현황과 문학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 때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의 연계성, 공통과정인 국어 교과서와 선택과정인 문학과목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맞는 학습대안을 찾아보았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전통의 창의적 신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재창작하기와 인물을 뒤집어 비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학 교과서에서는 선택 과정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한 학습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장면의 제시였고, 두 번째가 보조인물 확대하기였다. 새로운 장면의 제시는 기존에 <춘향전> 스

토리에 식상해버린 학습자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새로운 장면의 제시를 학습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두 번째로 보조인물 확대하기를 통해 학습자는 <춘향전>이 전승되어 온 과정에서 또 변용되어 온 과정에서, 보조인물들이 이야기의 흐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은 이미 국어 교과서에서 다져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안들을 소규모 협동학습과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의 한 방법으로 소규모 협동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학습대안들을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협동학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할 때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수-학습 지도안을 짜보고, 평가 방법까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수업방안을 짤 때 중점적으로 생각한 기준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입시제도 안에서 수업 실 단위가 한 작품 당 2~3시간 밖에 주지 않은 현실적 입장⁸⁴⁾ 모두를 고려하여 두 조건에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수업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실태와 새로운 수업모형의 제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본고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학교 현장에서 연구 성과들을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간

84) 현행 교과과정에 따르면 국어(하)의 <춘향전>의 실 수업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교육부, 국어(하) 교사용 지도서, 2001.

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고전 소설 교육은 바람직한 교육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1.
- 교육부,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1999.
-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하) 교과서>, 2002.
-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 (하) 교사용 지도서>, 2002.
-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下>, (주)지학사, 2004.
-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下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2004.
-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下>, 청문각, 2004.
-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下 교사용 지도서>, 청문각, 2004.
-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下>, 블랙박스, 2003.
-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下 교사용 지도서>, 블랙박스, 2003.
-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上>, 천재교육, 2002.
-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上 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2002.

2. 단행본

- 가와무라 미나토, 유재순 옮김, <말하는 꽃 기생>, 소담출판사, 2002.
- 김동욱, <增補 春香傳 研究>, 연세대출판사, 1976.
- 김동욱 · 김태준 · 설성경 공저, 《春香傳 比較 研究》, 삼영사, 1983.
- 김수남, 「'춘향영화'의 제작사와 양식적 특징에 대한 고찰」, 《고전희곡연구》 제6집, 한국고전희곡학회, 2003.

- 김용옥, <새춘향뎐>, 통나무, 1987.
- 김중신, <소설 감상 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김형규, <고전 교육의 목적과 교재 내용>, 《교육》, 제9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육회, 1959.
- 김홍규, <춘향-천의 얼굴> 김병국 외 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광학
술자료사, 1994.
- 백현미, 「창극 <춘향전>의 공연사와 양식상의 특징」, 《고전희곡연구》 제6집, 한
국고전희곡학회, 2003.
-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정음사, 1986
- 성현경, <옛그림과 함께 읽는 李古本 춘향전>, 2001.
- 송성옥, <고등학교 교과서 구성과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 《고소설 교육의 과제
와 방안》, 월인, 2005.
- 심치열,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 월인, 2005.
- 이미원, 「현대극의 <춘향전> 수용」, 《고전희곡연구》 제6집, 한국고전희곡학회,
2003.
- 이상숙,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 전통논의의 양상」, 《국어국문학》 제120호, 국
어국문학회, 1997,
- 이성호, <교수방법론>, 학지사, 2003.
- 일연,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2001.
- 우창호, <모듬 토의수업을 통한 <춘향전> 지도 연구>, 《고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
향》, 월인, 2005.
- 윤근길, 한방교 <교육방법론>, 태영출판사, 2005.
- 윤광보 외 <교육방법과 교육공학의 이해>, 양서원, 2003.
- 정로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 정하영, <춘향전의 주제>, 《한국 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조동일, <춘향전 주제의 새로운 고찰>, 《우리 문학과 의 만남》, 홍성사, 1978.
- 조운제, 《教主 春香傳》, 을지문화사, 1957.
- 조운제, 《국문학 개설》, 동국문화사, 1959.
- 조현설, <사랑 사랑 내사랑아>, 나라말, 2002.
- 천이두, <춘향가의 '몽중가' 소고> 《판소리 연구 8》, 판소리학회, 1998.
- 황패강, <춘향전 연구>,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 문화사, 1991.
- 《하이라이트 고전 연구》, 지학사, 1991. 207쪽.

3. 논문

- 고양숙, <춘향전의 현대적 수용과 문화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구혜경, <소설 교육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 김동환, <춘향전의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김석배, <춘향전 이본의 생성과 변모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 김아란, <판소리 소설 지도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5.
- 김영찬, <고전문학 교육의 지도 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은영,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문학 교육적 효과-페러디 소설 작품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용국, <춘향전 연구-장면의 비교제시를 통한 교육내용의 개선을 중심으로>, 연세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 김진희,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김혜경,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1.
- 노상예, <춘향전과 춘향가의 수업모형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류덕제, <소설 텍스트의 문학교육 방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95
- 박병술, <고전소설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박은주, <춘향전의 문학교육적 연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안성준, <관소리계 소설 지도방안 연구-춘향전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이미진, <고전 소설 수록 양상의 적정성 분석과 바람직한 교재화 방안>,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8.
- 전영선, <고전소설의 현대적 수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정상우, <춘향전 교육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정성란,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7.
- 정영아, <춘향 이야기의 근대적 변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황택준, <고등학교 고전 소설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ABSTRACT

Finding new methods to teach Choon Hyang Jun in the Senior High

-To be applied in the 7th Educational Process
Language and Literature Textbooks-

Son Min-Kyung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mong many classical literature works, Choon Hyang Jun, in particular, is the one we encounter the most. So many people love it, and many others feel sympathy for the story. In senior high textbooks, Choon Hyang Jun never failed to include itself from the 1st education process to the latest 6th education process. Such facts indicate that Choon Hyang Jun has a significant educational value in the field of literature.

But, as you teach students in real-life, you can easily realize that Choon Hyang Jun has lost its ability to bring in new interests as a piece of work. Too many have become sick of it, and most of the teachers are teaching students the same aspects and facts about the work over and

over again, despite the fact that many new and different studies were made of it. The curriculum is not progressive nor systematic, just briefly introducing the most well known thesis, or just teaching by textbooks.

Classic literature is treated lightly, because the moral lessons in classic literature were so greatly emphasized that it was "taught" before a student actually got to "choose" it and read it as literature by itself, thus making the students think that classic literature is something to be studied and memorized rather than to be read and enjoyed. Every other person may have different impressions and sentiments when reading a piece of work, but classic literature is being taught before the students actually get a chance to "feel" it. It's not considered as literature, just as something to be studied and memorized for exams.

This thesis is about finding a method to change the "boring and dead" recognitions on classic literature and bring it back to "life" in this modern world, letting scholars feel new interest in this field. Choon Hyang Jun, the most popular and well known, is chosen as the specific work to find a way to make the resurrection possible.

I extracted the essential teaching elements by surveying variou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materials, establishing teaching plans that could be applicable in the real-world classrooms. I strongly hope that I could contribute in bringing about new interests on classic literature, understanding the beauty of Pansori Novel, as well as realizing the value of classic literature a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showing us how language could be so beautifully carved and applied in literature.